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문우

2024 여름 일.본.번.제.이.아.기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문우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변혁의 펜을 높이 들자



2024 | 여름호 | 70호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변혁의 펜을 높이 들자

편집장	유연(국문 22)
편집위원	비상(경영 21) 튜브(중문 23) 어푸(행정 18) 데어(문정 21)
수습편집위원	산도(문정 23) 도토리(국문 22)
약은이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발행일	2024년 9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지하 1층 문우방
디자인	이젠디엔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눈물을 흘려라

편집위원 비상

너희의 행복에는 수분이 가득하다
먹고 마시며
기쁘고 습한 눈

적당히 젖은 눈들아
남루한 우리를 외면하지 말라

온갖 것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주제에, 지구를 물의 행성이라 부를 것인가?

푸른 세상을 위해
다시 뺄어라
다시 멈추어라
다시 들여다보라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하다
세상을 뒤덮을 안개가 필요하다
모두를 감싸는 빗물이 필요하다

그대 지금처럼
나의 숨을 먹을 것인가
나의 삶을 이을 것인가
물살을 타고 미래로 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물기 어린 자들이여
몸에 물이 가득한 모든 자들이여
적당히 습한 눈을 부끄러워하라

그리고 너의 눈물을 흘려라
곡하라, 넘칠 정도로 곡하라
목 놓아 울어라. 눈물이 필요한 곳에 모두 울음을 보내라
그 강이 세상이 될 테니, 우리는 그 땅에 배를 띄우고 흘러갈 테니

편집장 서문

2024년은 유독 슬픈 해입니다. 비명시적으로는 모든 해가 그러하겠으나 2024년에 이름 적힌 여러 슬픔을 불러 보자면,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였고 이태원 참사가 막 1년을 넘겼으며, 아리셀 참사가 있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이 연일 지속되었습니다. 이름 적히지 못한 빈곤의, 젠더폭력의, 숨 막히는 정상성과 느슨한 사회적 안전망의, 폭력적인 노동환경의 피해자는 얼마나 많았던가요.

슬픔이 무성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자꾸만 죽고 다치고 희미해지는데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이들이 입을 달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슬퍼함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무력을 감각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사에, 비극에, 좌절에 슬퍼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문우 70호는 영원히 슬플 편집위원들의 마음으로 넘실거립니다.

데어와 유연의 「연속기획: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는 슬픔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쓰고자 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두 글은 영원히 슬플 우리가 ‘편집위원’이라는 사실에 천착해 이때 어떤 재현이, 어떤 이야기가 (윤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도토리의 「기억할게, 애도의 언어로 적는 삶의 편린」은 그 자신의 슬픔을 소화시키는 애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도토리가 애도의 필수 불가결함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한 기록입니다. 「애도와 함께 모두의 내일로」에서 비상은 그의 개인적인 애도를 넘어 사회에 애도할 것을 청원합니다. 퀴어를 비롯해 사회가 애도하지 않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도 마땅히 애도가 주어져야 함을 역설합니다. 두 글은 각각 문학을 통해, 그리고 불륜 문화를 통해 애도하는 세계를 상상합니다.

메인기획을 지나 문우의 눈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산도의 「선의를 함정」은 한 국이라는 인종주의 사회에서 무수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산도가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친밀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눈 시간이 그들이 사회에, 인종주의와 신인종주의에, 나아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천막을 붙잡아 세우며」는 이번 학기 문우의 학내투쟁 기록 TFT 활동에 바탕을 두고 쓰인 글입니다. 어푸와 비상은 글의 방대해지는 분량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연세대학교의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흐름을 쫓아가며 기록했습니다. 당장 우리의 곁에 머무는 슬픔의 존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분투입니다.

문우 70호에는 짙막한 특별 코너가 실렸습니다. 편집위원들은 문우의 미래에, 70년 후의 세상에, 그리고 자신에게 바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정함을, 예민함을, 돌봄을, 투쟁을, 편안함을, PC함을, 그리고 슬픔을 놓아버리지 않으려 애쓰고자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 진실로 믿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께 우리의 슬픔을 드립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편집장 유연 올림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권두시		2
편집장 서문		4
메인기획 - 사회적 참사		
유연	연속기획: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 들어가는 글	8
데어	재현과 사건	10
유연	피해와 사건과 글과 연대에 관한 너무 많은 생각	18
도토리	기억할게, 애도의 언어로 적는 삶의 편린	31
비상	애도와 함께 모두의 내일로	45
<hr/>		
비상	70호 기념 특별 문답	61
<hr/>		
문우의 눈		
산도	선의를 함정	68
어푸, 비상	천막을 붙잡아 세우며	80
<hr/>		
활동정리		
어푸	“길이 참 좁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마음은 따뜻하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103
튜브	문우 69호 독자모임	107
<hr/>		
편집후기		135

메인기획

사회적 참사



연속기획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는 글

편집위원 유연

이 연속기획 페이지를 펼친 여러분은 이제 아주 많은 연대, 재현, 그리고 사건이라는 단어를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다소 추상적인 개념과 학술적인 인 용이 이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 데어와 유연이 한 학기가 넘도록 연대 그리고 재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서 내린 나름의 결론들을 이 지면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공유합니다.

•

이른 더위가 찾아들던 5월 말, 데어와 유연은 사회적 참사 세미나를 마무리 하는 5차시 '사회적 애도와 연대'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선정한 자료에는 엄 기호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와 오카 마리의 『기억·서사』 일부가 포함되 었습니다. 유연은 '그럼에도 서사가 필요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쓴 발제문의 마지막 문단을 "〈문우〉라는 공동 서사화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맺었습니다. 유연은 세미나를 다 끝나치고도 고 민을 버겁게 쥐고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세미나를 함께 준비한 데어가 기꺼이 그 고민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둘은 세미나 자료로 선정한 책 들을 다시 함께 읽었고, 추가적인 자료를 찾을 때면 서로에게 공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명분의 고민은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연대를 위해, 어떤 서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서사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한 고민은 새로운 질문들을 낳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연대일까요? 또, 무엇이 서사일까요? '윤리적' 서사와 '비윤리적' 서사를 구분짓는 선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서사가 곧 타자에 의한 사건의 재현이라면, 어떤 재현이 사건에 대한 연 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타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일이 윤리적 으로 혹은 완전히 가능하긴 한 건가요?

마구 쌓이는 의문들에 완전히 막막해진 둘은 결국 각자가 가장 궁금하고, 알지 못해 가장 답답한 지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데어는 '서사'를, 유연은 '연대'를 가져갔습니다. 데어는 사건과 서사를 구분짓고, 사건의 재현인 서사 의 여러 왜곡 가능성, 즉 불안전성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서사가 이토록 불완 전한 데에도 '왜' 재현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찾아갑니다. 유연은 그간 문우 에서 글을 쓰며, 이 재현의 글이 과연 연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 이 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유연이 그 고민에 매달리며 여러 개념을 공부하고 책을 읽은 흐름을 따라가는 글은 끝내 '어떻게' 윤리적인 재현을 시도해볼 수 있을지 나름의 결론을 내립니다.

조그마한 자긍심과 함께 내보이는 이 기획이 유연과 데어 둘의 최선이었음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재현과 연대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세상에는 또 다른 최선이 태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이어나갈 시간에 미리 감사합니다. 즐 겁게 읽어주세요.

재현과 사건

편집위원 데어

사건과 서사

서사는 사건의 재현 혹은 연속이다. 인간은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반복 재생한다. 따라서 삶은 사건의 연속이고, 재현의 연속이며, 그 자체로 서사이다. 사람은 삶 속에서 서사를 만들며 살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서사가 곧 사건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사건과 서사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서사와 사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사건은 실제 일어난 것, 그러므로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서사는 이를 언어화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사건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존재한다.

이러한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에는 서술자의 의도가 개입한다. 어떤 사건이 서사 속으로 포함되고 강조될지는 서사를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어떤 사건은 서사 자체를 이끌어가는 골조인 반면, 어떤 사건은 서사에 덧붙여져 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갖는다. 어떤 사건들은 그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는 반면 어떤 사건들은 인과 관계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서사는 서술자의 의도를 반영한 특별한 목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5·18 민주화 운동을 보자. 위르겐 한츠페터의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속 광주에는 외국인 기자인 한츠페터를 환영하는 사람들, 트럭과 버스에 올라타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후 그가 광주를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는 태극기로 감싸져 있는 수십 개의 관, 관을 붙들고 우는 여성, 관이 모자라 염도 하지 못한 시신들을 찍었다. 그가 찍은 광주의 영상에는 전두환의 취임식 장면이 뒤이어 나온다. 그 두 영상을 같이 배치함으로써 한츠페터는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의 원인을 명확히 지목한다. 이 독재자는 학살자다. 그러므로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면 그의 악행을 알아야만 한다.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고발이다.

반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담론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는다. 만약 독자가 이 책을 읽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해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이는 간접적인 영향일 것이다. 한강은 당시의 광주를 겪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총에 맞아 사망한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당시의 광주에 대해 90년대와 00년대에 각각 증언을 요청받은 두 인물. 소설은 독자에게 이해와 연민을 바란다. 광주에서 일어난 죽음이 독자와 무관한 일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독자가 이입하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요구한다.

이 두 작품의 저자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여 각기 다른 서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서사는 서로 다른 독자를 겨냥하고 있다.

서사와 왜곡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서사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독자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어떤 서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80년대 대학들의 동아리방에서 한츠페터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설을 여전히 읽고 눈물 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 항쟁이 여전히 계속되는, 이 야기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사건이 '진실된' 마무리를 요청할 때가 있다. 재판이 끝나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책임자, 현장 군인 등이 사건을 직시하지 않고, 책임을 부정하는 한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사건이 당사자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야 할 때 서사는 그 힘을 발휘한다. 서사는 사람들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건을 특별히 여기게 한다.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이 재난을 해결하고자 한다. 흔히 사용되는 단어를 인용하자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다.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사건 바깥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 목적에 동의하게 하려면, 이들이 이입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 사람들의 정동을 건드리려면 서사가 필요하다. 어떤 서사는 분노에 불을 댕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래서 서술자는 단어를 선택하고 사건의 순서를 구성해 사람들 앞에 펼쳐놓는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꽃'이 되고 바다는 '차갑고 검고 무정하게 아가리를 벌린다'.

이런저런 비유는 늘 오류 가능성을 갖는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채 못다 핀 꽃'과 같은 표현은 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지칭하므로, 나이가 많은 사망자는 이러한 호명에서 제외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강조하려는 가치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생명이 다른 이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 그렇다면 건조한 단어들은 어떨까? '사망했다'와 '살해당했다'는 똑같이 죽음을 말하지만, 후자는 살해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재현, 즉 사건을 언어화하는 것은 늘 이러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현'은 잘못되었는가? 서사는 사건을 왜곡하고 이용하기만 할 뿐인가? 오카 마리는 『기억·서사』에서 재현의 가능성과 리얼리즘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재현된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진실된 이야기를 원한다. 이야기가 충격적일 때 더욱 그러하다. 수전 손택이 "고통을 둘러싼 도상학은 기나긴 족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듯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거짓 없는 강렬한

이미지에 끌리는 듯하다.¹⁾ 자연스럽게 미술과 철학, 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는 사실주의 사조가 등장했다. 사실주의(realism)는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리얼하다'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실제로 진실인가? 『기억·서사』에서 든 예시를 언급해 보자면, 관객들은 <쥬라기 공원>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해 동일하게 '리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마주한 적도 없는 공룡에 대해 어떻게 리얼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경험하지 못한 전쟁에 대해 어떻게 리얼하다고 할 수 있나?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아무리 자료조사를 한들 육식공룡에게서 도망치고 포격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달리는 기분을 관객들이 '진실로' 이해하고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나? 우리가 진짜 같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영화를 우리의 직접 경험에 빚대어서 진짜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진짜 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 저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저러겠지."

조금 더 심정적으로 가까운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들이 입은 피해를 여성의 고통으로 바라보았다. '위안부' 피해자는 '꽃다운 소녀', '피해자 할머니'라고 불렸다. 곳곳에는 '소녀'상이 세워졌다. 또한 이들이 입은 피해는 "피지배 민족 여성에 대한 지배 민족의 성적 수탈"²⁾이라고, 민족주의적 시각에 기반해 해석되었다. 이에 대응해 김정란은 일본의 일차적 가해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를 멸시하고 침묵시킨 고국의 2차 가해를 비판하기도 했다.³⁾ 1990년대 들어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1991년 고(故) 김학순 인권운동가가 공개적으로 증언하기 이전까지, 생존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와, 그들 자신이 받은 상처와 수치심 때문에 이에 관해 기억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김정란과 같이 그들에게 피해자로서의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 정체성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을

1)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64

2) 이보라, 최민지. "②민족주의의 관점 밖 '위안부 연구' 외면한 운동...비판·성찰 사라져." 경향신문. 2020.06.1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6142109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n=sharing

3)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경향', 철학과 현실, 2006, 108-118.

촉구하려는 이들을 존중하라는 요구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할머니'라는 호칭보다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라는 호칭으로 불러달라는 요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진짜 같은 재현을 찾았다.

그렇다면 사건의 목격자, 방관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라면 사건을 올바르게 '재현'할 수 있는가? 『기억·서사』에서는 다시 일본군 '위안부'의 예시를 가져온다. 오카 마리는 “나는 여자로서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김학순 할머니”를 언급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뿐더러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폭력적인 '사건'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말이 '여자로서의 기쁨' 따위와 같이 진부하게 사용된 판에 박힌 상투어구였다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리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⁴⁾ 우리는 당사자에 대해 그가 그 사건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가장 정확한 전달, 가장 설득력 있는 서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모든 진술이 그러하듯이,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 알고 있는 서사에 한정된다. 당사자이자 서술자인 그는 자신이 살아온 현실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사건이 여러 당사자를 가질 때, 이들의 경험은 모두 다르고, 그 사건을 설명하는 서사 역시 다르다. 여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동일한 이름 아래 각각 다른 사건을 경험했다. 생존자 개인이 재구성한 서사 역시 다르다. 어떤 생존자는 이것을 전성 여성 성폭력의 맥락에서, 어떤 생존자는 개인적인 '나'에 대한 가해의 맥락에서, 어떤 생존자는 일제강점기하 인권 침해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당사자마저 정확히 재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재현이 윤리적인지 우리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재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4) 오카 마리. 『기억·서사』, 교유서가, 2024, 61.

왜곡과 경청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서술자에게 돌아와 보자.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 기였다.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이후 남겨진 유가족은 당연하게도 앞서 든 예시와 비슷한 서사화를 시도한다. 사건을 소화하고,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감정을 말하려고 하고, 사건에 맥락을 부여하여 서사화를 시도하여, 그 서사의 완결을 짓고자 한다. 그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쏟아지는 감정에 휩쓸리면서 이를 토해내려 한다. 아니, 오히려 온갖 감정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애쓴다.

이들은 사건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 해결이든, 해명이든, 그 무엇이든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건을 설명하는 주역이 되는 것은 일견 마땅해 보인다. 동시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사건을 설명하려고 드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가족의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유가족이 늘 그 사건의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언어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유가족의 언어는 맹렬한 만큼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은 '말 그대로' 말을 잊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가족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참사와 그 후 국가 폭력의 상황에서 개인으로서 대응하는 유가족의 서사가 너무 쉽게 묻히기 때문이다. 어떤 서사는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강력하고, 어떤 서사는 그 앞에서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재난본부의 '공식' 발표 앞에 개인의 서사가 덮이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가족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공론이다.

경청과 재현

애초에 사건은 말로 설명될 수 없다. 글의 첫머리에서 필자는 사건과 서사를 구분하겠다고 썼다. 사건은 완벽히 재현될 수 없다. 심지어 당사자마저 사건을 정확하게 언어화할 수는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전의 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시간 역시 흘러가,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의 당사자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다. 당사자가 아닌 이들이 사건을 정확히 서술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당사자 역시 사건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언어는 사건을 비껴가며 그 주위를 맴돈다. 이러한 우회는 필연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재현’은 흔히 쓰이는 의미의 재현과는 다르다. 사건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우리가 재현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저 침묵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그러지고 부정확하더라도 일단 내뱉어서, 적어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재현의 의미는 그것에 있다.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반복될까 봐, 불분명하고 부연 기억이더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이 또 사라지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이 길이 얼마나 돌아가는 길이든 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경향』. 철학과 현실, 2006, 108-118.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오카 마리. 『기억·서사』. 교유서가, 2024

이보라, 최민지. “②민족주의 관점 밖 ‘위안부 연구’ 외면한 운동…비판·성찰 사라져.” 경향신문. 2020.06.1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6142109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한강. 『소년이 온다』. 창작과비평사, 2014

피해와 사건과 글과 연대에 대한

너무 많은 생각

편집위원 유연

5월 30일, 첫 기획회의에 가져간 제 기획안의 가제는 '연대의 불/가능성'이었고, 구성 부분에는 잘 정리된 개요 대신 답 없는 질문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중 하나를 읽었을 때, 다른 편집위원과 조금 웃긴 문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연 연대라는 건 정말 뭘까요? 집회 가면 연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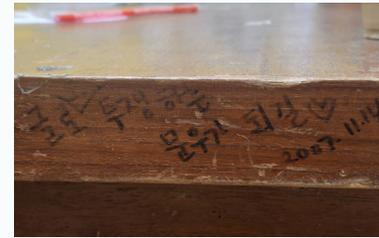
A 네!

유연 후원하면 연대인가?

A 네 그쵸?

유연 아니 그게 아니잖아, 맞긴 한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사실은 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대화를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반복 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연대가 뭘까요?'라는 질문의 앞엔 '진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연대가 뭘까요?' 그리고 그 질문의 앞에는 또 다른 말이, 이를테면 '나는 진짜 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었겠지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를 문우방의 오래된 책상 한편에는 “글로V도 투쟁하는 우리가 되길. -2007.11.14”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로’와 ‘투쟁’ 사이 ‘도’가 추가된 모습이에요. 이

문장이 쓰인 시점과 수정된 시점 사이의 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선배 편집위원들은 ‘글로 투쟁’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우에서 보낸 시간도 이제 제법 되어갑니다. 투쟁을, 연대를, 그리고 글 쓰는 것을 배우는 시간은 동시에 석연찮음 혹은 찝찝함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1학기는 더욱 그랬습니다. 몇 시간 정도 폭력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다고, 내가 참사 피해자에 대해 ‘써버려도’ 되는 건가? 나의 글은 정말로 연대나 투쟁, 그런 게 될 수 있나? 그건 ‘당사자’들이 원하는 일인가? 참사나 비극을 뉴스로 접하고, 가끔 집회를 나가고, 또 가끔 후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쓰고. (마치 후원이나 집회로 제가 행하는 재현의 값을 치른 것처럼.)

도대체 뭘가 진짜 연대지? 애초에, 연대가 뭘지?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쓰자고 생각했을 때부터 글의 결론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맺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A의 말처럼, “네, 그쵸? 그게 연대죠”라고 맺게 될 것일요. 그러나 저는 아주 많은 다른 친구들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작은 말과 행동이라도 분명 의미가 있다’는 정론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지향 삼으면서도 때로는 ‘이런 알팍한 것-글-도 연대라고 해도 되나?’부터 ‘그럼 뭘가 연대인데?’와 같은 의문을 주머니 속 뾰족한 돌처럼 계속 만지작거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그 친구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나마 제공할 수 있다면-약간의 연대나마 보탬 수 있다면-좋겠습니다. 결국은 ‘아주 작은 연대라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는 편한 답에 다다를지라도.



연대가 무엇인지를 답하기 위해서, 우선 연대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 보았습니다. ‘연대’라는 단어가 피해자에게 연대한다, 혹은 시민단체에게 연대한다는 식으로 쓰일 때, 그것은 별다른 의심 없이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연대(solidarity)라는 ‘하나의’ 단어가 ‘결속’¹⁾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봅시다. 결속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존재들’—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를 점한—이 요구된다는 것일요.

성폭력 사건을 예시로 생각해봅시다.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피해자 지원 센터의 실무자와 상담사, 한국여성의전화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단체 활동가는 피해자에게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또는 시사 프로그램 PD가 사건을 보도하는 식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NS나 기사 등으로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여성단체가 모금하는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속한 사람들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연대를 실천합니다.

이때 연대는 자주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렴됩니다.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피해자의 말을 들을 것, 이를 왜곡하지 않을 것... 연대의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의 등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김현영은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사건의 해결(특히, 성폭력 사건의 해결)의 핵심 원리이자 원칙으로 채택된 배경과 현상을 논합니다.

“그러게 왜 야한 옷을 입었냐”, “그 남자를 왜 믿었냐”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건

1) ‘결속’은 solidarity라는 단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자주 선택된 번역어 중 하나입니다. 결속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은 하나의 의견,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모습으로 상상되기 쉬우나,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의 책임을 돌리는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완벽하게 무결한’ 피해자 되기와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둘 중 하나를 강요당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자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발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전까지는 산발적이고 일상적이었던, 앞서 예시로 든 비난을 대표적인 ‘2차 가해’라고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들을 도구 삼아 활동가와 연대자들은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와 같이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사회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애썼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SNS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피해를 고발하고 연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말이 묵살되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현재의 불균등한 구조 속에서 ‘2차 가해’라는 단어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하고 소중한 수단이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입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때때로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적극적·포괄적으로 사용되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결속한 연대의 장에서 “지지자와 피해자 대리인”에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지원하지 않으면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권김현영 2018: 40)를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상황 맥락에 의존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쉽게’ 2차 가해가 되는 말과 행동은 있어도, ‘항상’ 2차 가해가 되는 특정 말이나 행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교 사회과학대학 자치규약이 “이는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임을 인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적어둔 것은 이러한 피해 판단에 있어서의 맥락 의존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 속에서 2차 가해 여부를 가릴 때에 맥락 의존성을 언급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모험입니다. 권김현영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말을 듣기’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피해자의 말에 유일한 해석의 권위를 부여”(51)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전권 위임은 외려 피해자

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사회에서 이해받을 만한 서사로 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고통을 자원으로 삼”(10)게 만듭니다.

데어가 쓴 「서사와 왜곡」에서도 읽어볼 수 있듯, (그것이 여전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의 느낌과 요구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말만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은 연대자에게 두려움을 무릅써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해석’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통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요.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을 넘어 다양한 구조적 폭력의 피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피해자, 참사 피해자... 사회 권력이, 혹은 지배적 문화가 피해자가 “뭘 모른다”던가 “이제 충분히 보상/경청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을 때, ‘피해자의 말을 들읍시다’라는 선언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가진 힘을 통해 가해에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해자의 말’은 누군가에 의해 대리 발화됩니다. 사회적 참사의 경우 그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발화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놓인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이때에는 유가족 혹은 지인이 대리 발화자의 역할을 맡아 문제와 요구, 해결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기록하고 알립니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발화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말을 ‘번역’하기 위해 대리 발화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해의 언어는 뒤죽박죽인 정동과 감정, 혼란스러운 기억의 언어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경우 피해의 언어를 법률 언어로 번역해야 하고, 취재 요청서 혹은 보도자료 작성할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공적 용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연대자들은 사건을 둘러싼 해석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하여 사건을 알리고 기억시키기 위해 피해의 언어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해결에 관여하

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 사건을 각기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 7월 24일, 서초경찰서는 ‘넥슨 집계손 사태’ 피해자의 고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남초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집계손’이 ‘메갈리안’의 상징이고, 여성 애니메이터가 비밀리에 넥슨의 홍보 영상에 집계손을 삽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애니메이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비난 메시지를 보내며, 무분별한 모욕과 욕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등 여성혐오적 사이버불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욕·비난성 게시글을 모아 명예훼손·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서초경찰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³⁾

서초경찰서의 각하 사유를 들여다보면, 경찰서 측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또한 이전에 페미니스트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바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라는 이유에서,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자기 작업물 등에 몰래 집계손가락 표현을 넣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모욕에 대한 ‘판단’에서 서초경찰서 측이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건, 그리고 피해의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는 피해 증언을 “도를 넘는 심각한 모욕적인 표현과 고소인이 하지도 않은 작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성적 비하”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아마 이 번역어는 피해에 관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재현된 ‘현실’ 외부에 누락된 ‘사건’의 잉여가 있”다면, 이 번역어는 분명 사건의 잉여-감정, 느낌, 감각, 순간의 생각과 뉘앙스-을

2) 2010년대에 많은 페미니스트가 활동한 메갈리아 사이트의 이용자, 즉 ‘메갈리안’의 줄임말이며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활발히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는 편집위원 비상호 글 「여기, 그대로, 애매하게」의 정의를 참고했습니다.

3) 김화빈. 「[단독] 경찰, ‘집계손 피해자’ 고소 각하...이유 황당」. 오마이뉴스, 2024.08.0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1654.

한가득 남겼을 것입니다.

연대자는 투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의 언어를 차용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언어가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완전한' 재현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 해석의 목적이 사회적인 것이 될수록 걱정 또한 커집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8월 8일, 서초경찰서의 불송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유리 씨는 '서초경찰서 불송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 성인지감수성 결핍,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지적하며 서초서가 "더 많은 여성의 희생을 만들어낼 것", "(위축된 피해자들이) 경찰과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사적 보복이나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할까 우려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서초서를 넘은 한국 경찰 전체의 고질적인 페미니즘과 성폭력 인식 부족 문제에 대한 규탄이고, 이 사회에 대한 규탄이었습니다.⁴⁾

넥슨 집계손 사태와, 사상검증 피해자의 고소 불송치 사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유사한 예시를 몇 개나 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사건은 유사한 상황, 유사한 이유로 끊임없이 발생하니까요. 이때 사람들은, 앞서 성폭력 사건의 예시로 설명했듯, 다양한 깊이와 방식의 연대를 하게 됩니다.

테어가 썼듯, 사건의 해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서사입니다. 그러나 연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해석, 이에 기반한 재현/서사는 항상, 필연적으로,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로는 다 표현되지 못한 사건의 잉여가 피해자를 괴롭게 만들기 때문일 수도, 그 서사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성의 재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의미를 확장하여 사회적인 것으로 재구성해낼 때, 많은 연대자들은 이 재구성-재

4)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긴급기자회견] 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하라! (8/8)." 한국여성민우회, 2024.08.08.,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q=YToxOntzOjE5OjRZ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1434702&t=board>.

현의 폭력성을 염려하게 됩니다. 권김현영은 자신이 알아온 연대자들이, "자신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목적에서 한 인간의 불행을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계속 묻는다"(26)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방송 취재, 신문 기사, 다큐멘터리, 소설, 영화와 연극... 사건의 재현·기술·서사가 넘쳐흐르는 시대입니다. 그 '리얼함'의 정도는 각기 달라도, 모두 매개자에 의한 가공 공정을 거쳤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에 여전히 타자에 의한 재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째서일까요?

사건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계속하여 잉여를 남기고 마는 언어의 문제는 비당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테어가 서술했듯, 당사자 본인조차 "사건을 정확하게 언어화"하는 데에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 이야기하지 말자고 사건의 서사화를 단순하게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면 "인력이 필요"하기에, 사건을 타자에게 공유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해결 또한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타자에게 공유되지 못하는 사건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주 명백한 형태의 폭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해결'이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았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 피해자가 받은 2차 가해들에 대해 또 다른 형사 과정을 밟는 것? 혹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 그러면 사건은 '해결'된 걸까요? 피해가 단순하지 않듯 가해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해는 구조에 기대어 발생합니다. 페미니즘이 '일베'와 같이 무조건적 '사회악'으로 호명되는 시대,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 노동이라는 단어는 너무 정치적이면서도, 가난한 이가 마땅히 해야 할 노동을 하지 않는 '게으름'을 탓하는 사회, 장애인이 지하철을 탈 수 없는 도시가 용인하는 폭력은 계속되고 반복되기에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재현은 사건을 나누어 갖는 일이고,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해내는 일이며, 제도 및 문화의 변혁을 꾀하는 일입니다. 재현은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사

건이 공적인 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사적인 장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재현은 사건을 공적인 장에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수한 재현이 수행됨으로써, 피해자의 동료 공동체 구성원이 (불완전하게 표상된) 사건을 알고, 대화를 나누고, 문제의식을 세웁니다. 그렇기에 타자에 의한 재현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해석을 전부 위임하게 된다면”(피가페 43) 사건의 ‘해결’ 또한 가능성을 잃습니다.

사건의 ‘해결’은 즉, 해결된 사건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의 ‘예방’입니다. 가해는 구조에 기대어 발생하고, 사건은 법·문화·역사 등이 뒤얽혀 복잡다단하게 구성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을 ‘해결’하는 일은 결국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에 대응하는 일,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위해 애쓰고, 빈자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비판하고, 꼭두새벽부터 지하철 선전전에 나서는 일이 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예방하는-일은 공론의 장을 여는 일, 즉 재현(공론’장’ 만들기)과 재현을 통한 재현(공론장에서의 ‘공론’ 나누기)을 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며, 다시 처음의 고민으로 돌아가봅시다. 재현은 정말로 연대가 될 수 있나? 이에 대해선 제 나름대로 답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재현이 그러한가? 피해와, 피해자를 수단으로 ‘동원’하는 데에 그치는 재현이 아니라면, 충분히 윤리적으로 재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명 지르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의 저자 레슬리 제이미슨은 타인의 삶을 기록하고 그것으로 예술을 하는 에세이스트입니다. 그의 팔에는 ‘나는 인간이다. 인간에 관한 그 무엇도 내게 낯설지 않다(Homo sum: humani nil a me alienum puto)’라는 타투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라기보단 선언에 가까운 것입니다. 레슬리가 ‘타인’을 포착하고, 함께하고, 그 순간을 조각내어 재배치한 후 기록하는 내내 그는 이 선언이 순진하고, 윤리적으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일이 아니었는지 고민합니다.

어쩌면 그 선언은 결코 성취될 수 없기에 레슬리는 그것을 몸에 새겨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도달 불가능성 자체가 아닐까요? 저에게는 인간에 관한 그 무엇도 낯섭니다. 그 어떤 연대자와 목격자, 기록자도 피해자라는 사람과 피해의 경험, 그 이후에 연달아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또한 연대자 각각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요.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료해서 가끔은 말할 필요조차 없기에, 우리가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는 막막한 몰이해를 경험하곤 합니다. 서로에게 조금의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아주 가득한 친밀성에 이르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때로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왜 그것을 원하지?

제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 읽거나 책을 읽어도, 어쩌면 인터뷰를 하거나 피해자 혹은 연대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거고, 당연히 ‘온전하게’ 재현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이를 타자에게 잘 공유하기에 언어는 한참 부족하고요.

‘나’는 인간에 대한 무엇도 낯설다는 것, ‘나’는 타자에 대해 무엇도 완전히 알 수 없으리란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재현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레슬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한 만큼 재현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20세기 중반의 기자인 제임스 에이지이고, 다른 하나는 21세기 초의 사진작가 애니 아펠입니다. 에이지는 미국 서부의 빈곤한 소작농 가정과 함께 살며, 묘사적 문체의 르포르타주를 썼습니다. 애니는 25년간 멕시코를 방문하며 한 멕시코 가정의 삶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재현이 시도된 시기도, 주제도, 재현의 매체도 달랐던 두 사람은 놀랍게도 유사한 돌파구를 사용했습니다.

에이지의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찬양하자』는 농촌 현장에 대한 긴 묘사와,

‘나의 정서 또는 생각을 뒤섞으며 몹시 혼란스러운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기할 만한 지점은 르포르타주의 전면에 등장하는 ‘나’, 그리고 그것이 ‘당신’으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가족 구성원 중 하나에게 연정을 품기도 하고, 불편한 침대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는 때로 자신의 자리에 ‘당신’을 위치시킵니다. “잠에서 깨어, 당신 얼굴에 미끈거린다고 느껴질 만큼 부드러운 목화 보푸라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작물이 잘 되는 흔치 않은 해다”와 같이, ‘나’-독자-가 느닷없이 ‘나’-에이지-의 순간으로 불러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재현은 기자인 에이지가 객관적 저널리즘에 던지는 근본적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찬양하자』는 그가 『포춘』지에 신기 위해 썼던 기사를 포기한 후 새로이 시도한 작업입니다.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현장을 보도하려 애쓴 에이지가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는 ‘리얼함’과 ‘객관’이 등치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합니다. ‘내가 목격한 것을 ‘당신’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일은 사실 전혀 리얼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애니는 마리아라는 멕시코 여성이 꾸린 가정과 꾸준히 만나며 사진을 찍습니다. 25년 동안 작업을 진행하며 마리아의 어린 자식이 어른이 되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순간까지 함께한 애니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있나?

애니의 작업에서는, 스스로 카메라를 드는 사진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애니 본인이 등장합니다. 카메라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애니와 마리아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찍은 사진, 애니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운 사진... 레슬리는 애니의 재현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그의 작업이 이룬 가장 큰 성취는 한 가족을 총체적으로 설명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고자 하는 애니 자신의 갈망을 보여준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타인을 목격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증언이다”(221).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삶을, 사건을, 피해를 이해할 수 없다면. 간신히 이해한 어떤 것들은 분명 ‘내가 이해한 상황일 거예요. 내가 느낀 감정, 내가 알게 된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만 한다는 의지, 나의, 연대하고 싶다는 마음...

애니의 멕시코 프로젝트는 미국인과 멕시코인 사회에서의 현격한 격차, 어두운 인종차별의 순간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며 마리아 가족의 현실, 그들이 마주한 부당함에 애니가 함께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에이지는 미국 농촌의 빈곤을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는 절박하게 ‘나의 자리에 ‘당신’을 불러옵니다.

여러 개념과 사례와 고민을 지나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나긴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책을 읽고, 기사를 확인하고 발언문을 발췌해서 쓰인 글. 재현에 재현을 거듭한 이 글은, 정말로 연대의 한 모습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네, 연대예요.”라고 답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연대가 아니라고 답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고민과 걱정을 따라와주시길 바랐어요. ‘연대가 뭐지? 나는 진짜 연대를 하고 있나? 내 글은 연대가 될 수 있나?’ 이런 두서없는 질문들 속 모종의 찝찝함을 느끼길 바랐고, 그 찝찝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정을 나눠 가지길 바랐어요.

저는 앞으로도 가끔 후원을 하고, 또 가끔 집회에 가는 사람으로 살겠죠.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내가 본 장면, 내가 읽은 책, 내가 나눈 대화와 내가 알게 된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해 쓸 때에, 제가 이 글을 쓴 적 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내 글은 연대인가?’라고 자조적으로 혹은 비자조적으로 묻는 대신, ‘내 글로 연대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해달라고, 나의 분함에, 막막함에, 억울함과 울음, 슬픔과 절박함에. 내가 소리 치며 걸어가는 그 자리에 당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글을 닫습니다.

참고문헌

권김현영 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김병균 역, 교양인, 2018.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2018.

오카 마리. 『기억·서사』. 교유서가, 2024.

레슬리 제이미슨. 『비명 지르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 송섭별 역, 반비, 2023.

기억할게, 애도의 언어로 적는 삶의 편린

수습편집위원 도토리

1. 파도와 모래성의 비유

죽음은 예기치 않게 삶을 침범한다.¹⁾ 이는 냉혹한 현실이다. 타인의 부고 소식, 살려달라는 외침, 죽음은 우리의 일상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삶은 마치 파도 옆의 모래성과 같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나, 그 본질에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 불안정성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의미와 죽음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뇌하게 만든다.

문학 시간, 묘비명을 쓰며 처음으로 나의 죽음을 마주했다.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할 때, 나는 “나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적었다. 내 부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모순적이게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를 기억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것이다. 이 모순된 욕망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낸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

1)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죽음으로의 선구(Vorlaufen zum Tode)' 개념을 참고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실존적 삶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의 흔적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한다.

찰나의 찬란함, 행복했던 삶의 편린을 애도의 언어로 기록하고 싶다. 흩어지는 미래알을 움켜쥐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흔적을 붙잡고 싶다. 마치 시간의 모래시계를 뒤집으려는 헛된 시도와 같을지라도.

이 성찰은 죽음에 대한 사유, 그리고 애도라는 행위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표면적인 답은 자명해 보인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죽음은 애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위적인 명제를 넘어 더 본질적인 질문에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왜 애도되어야 하는가?”²⁾하는 질문, 이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와 부재의 공허를 마주하기 위해서.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본 글은 직접적인 재난 경험이 없는 필자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증인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죽음을 목격한다. 이 글은 그러한 목적의 기록이자, 존재와 부재,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애도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우리가 애도하고, 애도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2. 사라짐과 남겨짐: 존재의 변증법

모래성과 파도의 비유를 다시 빌려 와서, 삶의 순환과 존재의 변증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무너지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끊임없는

사라짐과 남겨짐의 순환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

‘사라짐’과 ‘남겨짐’, 이 두 개념은 얼핏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상 서로를 규정하고 완성하는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꽃잎이 떨어져 사라짐으로써 그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생기듯, 사라짐은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이 된다. 삶에 존재와 부재가 끊임없이 공존한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면, 순환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택’일 것이다. 어떤 사라짐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남겨짐을 경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일, 어디에 나를 소진하고 몰두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선택과 책임이 애도의 핵심이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하게 파괴되지 않은 채로 살아 있다. 이 사실은 무얼 말하는 걸까. 그건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 미친 것처럼, 정신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건, 그 불안으로부터 한 발짝도 비켜날 수 없는 건 바로 그 때문이리라.³⁾

애도는 타인의 생을 기억하는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는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바르트는 “나는 지금 밀바닥까지 절망에 빠져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울적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⁴⁾고 고백한다. 이는 애도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슬픔을 억누르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하지만 나는 자주 더는 그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허물어지고’ 만다.”⁵⁾라고 말한다. 이 고백은 애도의 과정이 사람

2)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애도 불가능성(impossibility of mourning)’ 개념을 참고했습니다. 데리다는 진정한 애도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항상 애도의 불완전성과 씨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롤랑 바르트, 『애도일기』, 걷는나무, 2012, 17.

4) 위의 책, 19.

5) 위의 책, 22.

을 잃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진적이고 압도적일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우리는 때로 감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나 이러한 ‘허물어짐’은 애도의 일부 이기에 자아 소진 역시 애도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우찬제는 『애도의 심연』에서 애도의 과정과 범위를 확장시킨다. 그는 “참혹한 전쟁이나 홀로코스트에서부터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통해 사라지는 존재의 형상들은 물론, 나날의 삶에서 늘 지연되기만 하다가 사라지는 가능성의 소진에서도, 우리는 심연 속으로의 사라짐을 절감한다”⁶⁾고 언급한다. 결국 애도는 단순히 개인의 죽음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우리 삶과 세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복잡한 과정인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을 넘어선 집단적 트라우마와 애도의 과정을 보여준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던 도시와 공동체 전체의 소멸을 애도해야 했다. 이는 우찬제가 말한 ‘세계 박탈’⁷⁾의 극단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라짐’의 경험은 흔하다. 오랫동안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거나, 단골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은 개인의 직접적인 상실은 아니지만, 익숙한 세계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는 죽음이 아닌 ‘사라짐’에 대한 애도라고 볼 수 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서 마콘도 마을의 몰락은 한 가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계 전체가 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우찬제가 말한 ‘가능 세계의 소진’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이 세계의 탄생 안에는 필연적으로 잔혹한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⁸⁾이라는 언급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거대한 우주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와 경

험이 탄생과 소멸의 순환 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는 이러한 ‘잔혹함’의 거시적 표현이다. 수많은 종의 멸종은 단순히 개별 생명체의 죽음이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가 영원히 소멸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애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구 전체에 대한 애도로 확장된다. 동시에, 이는 새로운 환경 의식과 생태학적 이해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잔혹함’과 ‘소진’의 경험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오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목표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연관된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잃게 된다. 이는 우찬제가 말한 “가능성의 소진”의 일상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기도 한다. 한 꿈의 소멸은 다른 꿈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애도의 개념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는 이별과 퇴직, 고향을 떠나는 경험 등 일상적인 상실 경험들도 모두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애도의 개념에서, 애도의 감정 역시 단순한 상실감이나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음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게 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애도는 상실과 소진의 과정인 동시에 내면의 확장이고, 과거를 추억하는 방식인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행위이다.

3. 보이지 않는 꽃의 향기

애도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긴 여정이다. 이 여정의 종착지는 결국 ‘평온’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단순히 죽음을 망각하고 상실 이전 무지(無知)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아픈 기억 위에 담담히 설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자

6) 우찬제. 『애도의 심연』. 문학과지성사, 2018, 6.

7) ‘세계 박탈’이란 개인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세계가 급격히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33.

신만의 언어로 이 경험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가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며, 『애도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하고 긴 여정이다.

애도는 표면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 이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싶은 역설적 욕망이며, 동시에 떠난 이와 남은 우리가 모두 잘 살기를 바라는 양가적 소망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복을 빈다’는 표현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불가능한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넌 거기서도 잘 살 거야, 그래서 나도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묶인 회상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도다. 떠난 이의 미래와 남은 이의 미래가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애도의 과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문학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문학은 인간의 심연을 언어로 포착하고, 서술하는 예술 형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문학의 힘을 빌려 ‘현실’이라는 가능 세계에서 ‘죽음’과 맞닿은 그 불가능성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

유체가 필 준비를 마쳤나봐 4월의 바람은 청록이었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던가 계절의 뼈를 그리는 중이라 했지
옷소매는 죽어버린 절기로 가득했고 빈틈으로 무엇을 키우는지 알 수 없었어
주머니에 넣은 꽃잎을 모른 채 했던 건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⁹⁾

「친애하는 언니」부분

김희준의 「친애하는 언니」는 애도의 복잡한 감정과 그 시간성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유체가 필 준비를 마쳤나봐 4월의 바람은 청록이었어”라는 구절은 봄이

9) 김희준. 「친애하는 언니」.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 문학동네, 2020.

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은 상실의 그림자와 함께 온다. “4월의 바람은 청록이었어”라는 표현에서 ‘청록’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애도의 색채를 띤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던가 계절의 뼈를 그리는 중이라 했지”라는 구절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기억이 덧없음을 보여준다. ‘계절의 뼈’라는 표현은 시간의 구조, 혹은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머니에 넣은 꽃잎을 모른 채 했던 건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구절은 애도의 핵심을 담고 있다. ‘언니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화자가 상상하는 이상향이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아름답다. ‘꽃잎을 모른 채 했던 것’은 현실에서의 상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그 상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태주의 시는 애도의 역설, 즉 부재 속의 현존을 경험하는 역설적 순간을 포착한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된다¹⁰⁾

「멀리서 빈다」부분

‘보이지 않는 꽃’은 애도의 핵심을 상징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로 존재를 드러내는 꽃처럼, 애도는 부재를 현존으로 바꾼다. 이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애도의 본질, 즉 상실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는 역설을 정확히 짚어낸다. 나태주의 시는 애도의 시간성을 교묘하게 뒤튼다. “다시

10) 나태주. 「멀리서 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지혜, 2015.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된다.”는 구절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하고, 동시에 미래로 투사한다. 여기서 그가 보는 ‘너’는 단순히 떠나보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아침으로 밝히는 현재진행형의 존재다. 시의 후반부는 이러한 시간과 관계의 상호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¹¹⁾

「멀리서 본다」 부분

이 구절은 그리움이 단순히 산 자가 죽은 자를 향해 느끼는 일방적 감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비록 서로가 있는 곳을 알 수 없고, 심지어 그 세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라도, 서로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양측 모두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사라짐을 기억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세계(저녁)를 창조해 내는 힘이 됨을 시사한다.

시의 마지막 구절,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는 애도의 궁극적 목적을 상기시킨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애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평온한 상태에 대한 열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과 관계의 역동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김연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서 더욱 과감하게 확장된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상실 이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작은 희망과 가능성을 그려낸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애도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말해준다.

김연수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11) 위의 작품.

다.”¹²⁾라는 소설적 선언을 통해 애도의 시간성을 완전히 뒤집는다. 우리는 흔히 애도를 과거를 향한 행위로 여기지만, 그의 소설에서 애도의 진정한 힘은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문장에서 우리는 비장해진다. 상처와 고통을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태도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죽음이라는 사건 그 자체는 비가역적이지만 그 후의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상실이 애도를 통해 그 어떤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 죽음은 사건이지만, 애도는 행위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나의 세계를 직조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애도해야 한다.

4. 침몰하는 죽음들



참사(慘事)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의 고유성을 잃어버린다. 이름이 지워지고, 죽음이 통계로 환원될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생명의 상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거대한 비극은 그 자체로 애도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개인의 죽음이 중첩된 수많은 부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버틀러가 지적했듯이, 참사가 세계의 상실인 동시에 각 개인의 고유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¹³⁾

나에게는 과거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초등학교이었던 나에게 세월호 참사는 처음에 단순한 ‘사건’에 불과했다. 당시 나에게 그 사건은 TV의 뉴스, 실시간 검색어의 한 키워드일 뿐이었다. 차가운 바다로 침몰하는 배를 보며, 그 안의 생명들의 운명을 단순한 뉴스로 받아들였다. 세월호 탑승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

12) 김연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토록 평범한 미래』, 문학동네, 2022.

13) 하예린, 『릴리언 헬먼의 『아이들의 시간』에서 레즈비언 우울증과 애도의 가능성』, 석사, 부산대학교, 2020. 본 논문에서 사용된 주디스 버틀러의 애도 가능성 이론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을 들으며, 나는 그 목소리를 거대한 ‘죽음’으로만 인식했을 뿐, 개개인의 상실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내가 목격한 것은 ‘세월호의 죽음’ 그 자체였다. 무책임한 시선으로, 나는 무수한 생명의 사라짐과 그 가족들의 상실이 아닌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을 바라봤다. 이후 중학교에 올라와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서야 나는 그 사건을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해했다. 실제 사람들의 발화를 통해서 죽음을 마주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명들의 거대한 상실을 인식했다.

한 학생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학생은 “함께 나가자고 약속했는데,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말았다”고 증언했고, 나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다큐를 보며 울고 있었다. 나와 전혀 다른 세계의 타자의 죽음을 보며 처음으로 흐느껴 울었다. 그전까지도 분명 나는 그들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너무나 거대한 사건으로 치환해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상실을 통감하지 못했다. 어떤 죽음은, 너무 거대해서 오히려 그 애도가 작아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건의 진실은, 배가 가라앉음과 동시에 수백 개의 온전한 세계가 사라진 것이었다. 세월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동시다발적 종말이었다. 그렇게 침몰하는 죽음들을 다시 바라보고 마음에 담았다. 그러면 서도 내가 여전히 그 사건 바깥에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 죽음의 당사자도 직접적인 목격자도 아니기에, 나의 애도가 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고민과 애도에 대한 방향 속에서 나는 『눈먼 자들의 국가』에 실린 김애란의 글을 읽었다. “우리가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¹⁴⁾는 문장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애도에 대해 이해했다. 우리는 사회적 참사 앞에서 모두 ‘바깥’에 서게 된다. 우리의 애도는 완전한 타자의 애도일 수밖에 없지만, 그 공간을 둘러싼 액자처럼 죽음을 돌

러쌀 수 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바깥에 존재한 자이기에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연대할 수 있다.

중학생 때 가방에 달았던 노란 리본의 의미를 이제는 마음에 간직한다. 바다를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을 떠올린다. 우리가 듣지 못한 그들의 마지막 목소리, 우리가 닿지 못한 그들의 손길을.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그 ‘바깥’에 서서, 침묵 속에서 그들을 기억한다.

어떤 애도는 아픔 그 자체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나를 소진하는 일일지라도 그런 애도는 가까운 자들의 것일 것이다. 그럼, 그 바깥에 선 나의 몫은 아픔에 천착되지 않고 담담히 이를 애도하고, 기억으로써 연대하여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침몰한 생명들을 기억하며,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의 상처이자 수많은 개인의 세계가 무너진 비극임. 우리의 애도는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고, 각 생명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세월호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원히 외부에 머무를지라도, 이것이 타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의 애도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일 것이다.

5. 그럼에도 애도가 두려운 까닭은

애도가 필요함에 대해 이렇게 쓰면서도, 나는 종종 애도가 두려워졌다. 그리고 애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나의 세계에서 언어로 직조된 ‘죽음’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죽음은 산 자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다.

14) 김애란,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21.

죽음 자체가 심오하고, 이를 수용하는 감정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욱 심오한 주제이기에 애도를 다루기 어려운 것 같다. 나도 이 글을 쓰면서 애도에 대해 생각했지만, '애도는 무엇이다'라고 함부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만일 그러한 정의를 시도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가 애도가 아닌 것들에 비해 클 것이다. 또한 필자는 여기서 살아있으면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불가항력 때문에 마음이 자꾸 힘들어졌다.

또한 나는 재난 경험도 부재하고 가족이나 연인, 가까운 친구를 죽음으로 잃어본 적이 없는, 큰 상실 없이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써도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다. 그래서 앞서 애도의 범위를 죽음뿐 아니라 사라짐과 향수에 관한 것으로 이미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라짐을 경험하고 이를 애도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글을 쓰거나 잘 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다. 나는 애도에 대해 잘 알고 있나? 그것은 진정한 애도인가? 내 정의가 소신 있게 진심으로 행했나? 그럼에도 나는 이런 질문들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애도에 대해 말하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 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전제라고 할지라도, 모든 애도를 인정하는 일 또한 불가하니, 나는 계속 질문하고, 그것이 틀릴지라도 정의하고, 자기 모순적일지라도 애도를 행하고, 애도하는 일이 자기 소진을 넘어서는 일임을 이야기하려 한다.

애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애도에 대해 먼저 논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애도의 경우 산 자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추모이기에 애도를 정의하고, 행하고, 이것을 애도하라고 말하기가 분명히 어려울 것 같다.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애도가 필수적으로 사회에 필요하다면, 혼자 슬픔을 간직하더라

도, 함께하는 연대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리본을 달거나 추모식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말이다.

애도와 연대는 매우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모순된 감정과 행동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애도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애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학기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애도에 대해 고민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나는 애도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라고 하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애도를 생각하는 그 행위가 수월해졌는가를 물으면 그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애도에 대해 고민했던 그 지난한 시간들은 내 안에 남을 것이다. 내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이 고민이 유효하리라는 것은 확신한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시간 동안 나는 애도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어쩌면 내가 마주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이 더 많았다. 애도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낙관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향해 나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애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의 서사를 써 내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실과 슬픔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자. 더욱 애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내일을 꿈꾸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민음사, 2000.
- 김애란.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21.
- 김연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토록 평범한 미래』, 문학동네, 2022.
- 김희준. 『친애하는 언니』. 『언니의 나라에선 누구도 시들지 않기 때문』, 문학동네, 2020.
- 나태주. 『멀리서 본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지혜, 2015.
- 롤랑 바르트. 『애도일기』. 김진영 옮김, 걷는나무, 2012.
- 우찬제. 『애도의 심연』. 문학과지성사, 2018.
- 전승민. 『퀴어 포 에티카』. 문학동네, 2024.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2. 논문

- 문성윤. 「국가적 참사로 발생한 타자의 죽음과 사회적 애도에 관한 고찰: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72, 65-84, 2024.
- 신예빈. 「불완전한 애도: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애도 이론을 바탕으로」. 『도예연구』, 2021.
-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제58권 4호, 2012.
- 하예린. 「릴리언 헬먼의 『아이들의 시간』에서 레즈비언 우울증과 애도의 가능성」. 부산대학교, 2020.



오래 ‘술이 들어가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쭉하고 우울한 말들이 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지만, 알코올 없는 상태에서도, 나에게 종종 찾아오는 슬픔을 쏟아내는 순간이 있다. 친한 사람이 면전에 떨어졌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람과 이별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할 때 말이다.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슬픔을 나눈다. 어떤 어두운 식당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새벽까지 눈시울을 붉히거나 열띤 얼굴을 하며.

이 글을 읽는 대부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나누었던 내밀한 이야기 중엔 분명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그중에는 사회에 대놓고 말하지 못해 미쳐버릴 것만 같았던 이야기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말하지 못해 속이 끓아 들어갔던 상황들에서 내가 겪은 혼란을 통해, 내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번 시험 완전 망했어. 학점으로 묘비 세웠다니까? 이거 무슨 말인 줄 알아? D+ 옆으로 돌려 봐.”

“난 개가 진짜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손절하게 됐는지 모르겠어.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분 어릴 때 몇 번 봤었는데 돌아가시다니 솔직히 안 믿기고 인생 너무 알 수 없는 것 같아.”

전부 내가 했던 말들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 곳에서나 말할 수 없다. 보통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말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선뜻 위로를 건네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나는 조금 더 활기분해졌고, 이 슬픈 일들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슬픔을 나누고, 기억하고, 돌아보는 식으로 차츰,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머리 짧게 자르고 대중 ‘안 여자같이’ 입고 다니니까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야. 남자냐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리고 계속 중얼중얼... “그래서 여자냐?”고 물어봐. 진짜 짜증 나더라.”

“저번에 그 사람이 나보고 되레 욕을 하더라고. 미친년이라고. 지가 나를 협박했으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건장한 남자가 내 집도 다 알고 협박도 하는데 안 무섭겠냐고.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같이 (트랜지션) 수술비 모으자고 이야기도 막 했었고, 키배도 같이 뜨고 그랬었는데. 유서도 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그날 꿈을 꾸면 너무... 모르겠다, 그냥 설명을 못 하겠어.”

이것들도 전부 내가 했던 말들이다. 이 또한 보통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말할 수 있었고, 나의 친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위로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느꼈던 아픔이 그다지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는 어쩐지 화가 났고, 이런 말들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느꼈다. 이 말들은 부모님 앞에서도, 어떤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른 슬픈 일이 남긴 상처들과는 아예 종류가 다른 아픔이 느껴졌고 그걸 낫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차이가 너무 아팠다. 사실 이 차이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적합한 언어를 고르기조차 힘들었다. 무어라 말하면 좋을까,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대놓고 공공연하게 말했을 때 나의 사회적인 위신이 떨어지고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것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었다. 까놓고 말하면 페미니즘, 퀴어, 만성적 정신질환, 위계에 의한 폭력의 경험, 그런 어찌구들. 나의 슬픔이나 경험에 이런 소수자성이 관련되기만 하면 누군가 내 입을 틀어막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위에 언급한 예시들을 다시 보아도 그렇다.

“내가 머리 짧게 자르고 대중 ‘안 여자같이’ 입고 다니니까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야. 남자냐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리고 계속 중얼중얼... “그래서 여자냐?”고 물어봐. 진짜 짜증 나더라.”

이건 어디 가서 말하면 누군가에게 너 꼴페미냐, 좀 더 여자같이 하고 다니면 될 일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소리고.

“저번에 그 사람이 나보고 되레 욕을 하더라고. 미친년이라고. 지가 나를 협박했으면 서, 그래도 되는 거야? 건장한 남자가 내 집도 다 알고 협박도 하는데 안 무섭겠냐고.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건 뭐랄까, 말하기엔 으레 사회에서 폭력의 피해자를 바라보는 ‘네가 미친년’이라는 시선을 받을까 봐 무섭고. 뭔가 이걸 밝히자니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걸 드러낸다는 점 자체가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며 무너뜨리는 기분이고.

“같이 (트랜지션) 수술비 모으자고 이야기도 막 했었고, 키배도 같이 뜨고 그랬었는데. 유서도 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그날 꿈을 꾸면 너무... 모르겠다, 그냥 설명을 못 하겠어.”

이건... 트랜지션이 무슨 뜻인지부터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트랜지션은 시술 혹은 수술을 통해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성별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몸을 찾아가는 과정 혹은 그 행위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 말하려면 일단 상대한테 커밍아웃부터 해야 하고. 내가 말하는 상대나 사회가 퀴어들이 죽어 나가는 이유를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서 말하기 두렵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하지 못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싫었다. 그러니까 ‘내가’ 침묵해야 한다는 점에 화가 났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건 사회인데, 세상인데, 왜 세상 아무도 슬퍼하지 않지? 이 아픔에 책임이 있는 너희는 왜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모르쇠하고 있고, 내 입을 틀어막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니, 나와 마찬가지로 소수자성에 기반한 아픔과 폭력을 겪거나 이를 주변에서 목도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해졌다. 그러니까 나도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렇게 나는 점차 개인적인 애도와 사회적인 애도를 구분해 갔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애도라고 하면 누군가 죽었을 때 보내는 슬픔과 아쉬움의 감정들을 총칭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 나에게 개인적인 애도란, 아까 말했듯 내밀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위로와 지지 같은 것이다. 이것들은 지금도 나를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애도는 이와 다르다. 내가 말하는 ‘사회적 애도’란, 명백히 사회의 책임인 슬픈 일, 폭력, 비극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제도와 모든 구성원이 그 발생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슬픔과 연대를 표현하며 이 비극을 멈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회적 애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대상에 따라 사회적 애도를 받을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폭력과 비극의 피해 대상이 ‘사회의 시선에서’ 못마땅하다면, 그들의 슬픔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외면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을 아는가? 매년 11월 20일은 차별과 혐오로 슬하게 목숨을 잃거나 폭력에 시달린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이날, 세계 곳곳에서는 행진 및 시위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가해졌으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모든 폭력을 기억하라, 추모하라, 그리고 애도하라고 소리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표현하는 이미지, 트랜스젠더 플래그 색의 양초에 불이 붙어 있다.



한국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주최한 '2023년 TDOR 메모리얼 파티 <그리고, 춤추자>'의 홍보 이미지.

이들이 거리로 나오고 행진하며,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스러져 간 이들을 추모하며 소리 질러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의 슬픔은 이때까지 말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종류의 것이다. 트랜스젠더 당사자(혹은 연대자라도)가 사회에 나와 소리를 지르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 아픔에 연루되지 않은 대다수는 그 폭력을 모른 척하거나 '그래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트랜스 패닉(Trans Panic) 방어'에 대해 아는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혐오 폭력/살인 범죄를 저지르면, 가해자가 자신을 '소수자인 상대방이 성적으로 접근하여 패닉한' 피해자라 항변하는 것이다. 유사한 궤변으로, 피해자가 동성애자인 경우에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이 패닉(Gay Panic) 방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진술에 대해, '그럴 만했다'라고 배심원이 형량을 낮춰 주거나, 판결이 더 유해지는 경우는 계속 존재해 왔고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성소수자 당사자의 아픔과 피해 사실이 전혀 사회적으로 애도되지 못하고,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뿐인가? 사회적인 폭력과 차별이 작용하며 애도를 어렵게 하는 예시는 다른 곳에 서도 찾을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장애인 지하철 시위)에서도 말이다. 장애인이 원하는 곳으로 수월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2002년 발산역에서, 서울역과 신길역과 혜화

역 등 많은 지하철역에서 반복되었다. 그렇기에 장애인 및 연대자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장애인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도 말이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공권력을 동원해 그들이 지하철에 들어오는 것을 강압적으로 막고, 보조기구를 파손하였으며, 이들의 시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폭력적인 퇴거 조치와 압박만 이동권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대낮에, 출근 시간에 웬 시위냐며 시끄럽다고 귀를 막고, 손가락질하고, 불편하다며 짜증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이 사회의 많은 시설, 제도, 공간 등이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시 출근' 등의 여러 이념 또한 그러하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과 폭력에서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멈추라 요구하는 목소리를 비난하고 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강제폐쇄 사건을 아는가? 파주시는 2023년 용주골의 성매매 집결지를 마음대로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고서, 갈 곳이 없는 성노동자¹⁾에게 현실적인 주거와 생계유지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성노동자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어 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주골에 모여 일하는 성노동자 역시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용주골은 그들의 일터이지만 집이기도 하였다. 파주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순간에 살아갈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한 용주골의 성노동자들은, 지금까지도 파주시와 파주시의 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 중이다.

1) 성노동자라는 단어의 사용은 그들을 노동하는 존재이자 노동 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호명하기 위함이다. 이는 '성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성노동을 그만할 수 있게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담론과 양립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이미 성노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한 정당하며 꼭 경청되어야 하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 성노동을 노동으로 호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용역을 불러 성노동자를 물리적으로 밀쳐내고, 끌어내리고, 갖은 폭력을 가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성노동자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이다. 그들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성노동 현장의 혐오와 폭력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터전을 지상에서 밀어내버리는 파주시 및 파주시의 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틀림없이 성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군가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없어져서 잘 되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사를 쏟아낸다. 그들이 성노동에 유입된 배경에서 어떤 사회적 폭력과 소수자성이 작동했는지, 사회가 (용주골 사건에서는 파주시가) 어떻게 성노동자를 차별하고 멸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말이다. 이렇게 성노동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심사'에서 연거푸 탈락하였으며, 살아갈 자리를 잃고 사회적 멸시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애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가 마땅히 애도하여야 하지만 애도하지 않은, 애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두룩하다. 그런 애도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사회적 시선과 압박 속에서 아예 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수자가 겨우 목청을 높여 사회에 소리치더라도 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 애도를 받기란 매우 어렵다. 지금, 소수자에게는 사회에서 마땅히 주어져야 할 애도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서 열거한 예시 속 소수자들의 소리치는 목소리와 공명한다. 이 글은 사회의 모든 이에게, 소수자가 겪은 사회적 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애도해 달라고 울부짖고 슬픔에 동참하라고 옥박지르는 글이다. 왜냐? 소수자가 겪은 아픔과 폭력은 개인적인 위로만으로 해결되기도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다른 개인 간의 가해-피해 관계가 그렇듯, 사회가 해를 가했다면, 당연히 사회가 그 피해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동참하여야 하니까 말이다. 소외당하는 집단과 차별받는 성원을 사회에서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질 때에만 소수자는 이 사회에서 내가 폭력을 당하고 차별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리라 안도할 수 있다. 그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소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주체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구조이다.²⁾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사회 속에서, 사회에 영향을 받는 개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개인이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음과 더불어 우리는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가 그 속의 존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에 책임이 있을 때, 해당 존재에게 사회적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는다. 그렇기에 나는 우리에게, 사회에 의해 슬한 아픔을 겪은 모든 소수자에게 애도를 표하라고 사회를 향해 외치고 싶다. 그것이 소수자를 사회의 성원, 권리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응당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태껏 소수자들이 하던 대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투쟁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서서히 소수자의 비극을 알려가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안해 보려 했지만 역시나 어려웠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사실이다. 창문을 깨고 불을 지르고 달리는 경주마 앞으로 몸을 던지며 여성 참정권 및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한 서프리트처럼, 분명 이런 방법들이 빛을 발한 순간들은 많다.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존재가 투쟁하고 있으며 희망을 잃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몇백 년을 축약한 역사책이 아니라 일본일초가 정직하게 흘러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변화될 세상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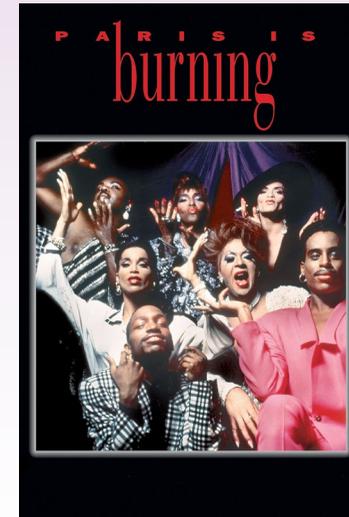
2) 그리고 그 사회와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각 개인도 폭력의 주체가 되어 사회의 차별적인 이념과 혐오를 답습하고 재현한다. 이 글은 그런 개인의 폭력과 혐오에 대한 책임을 묵인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라, 그런 개인의 폭력과 혐오도 사회와 사회적 구조에서 파생되었음을 짚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는 대신, 기쁜 상상을 해 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모든 존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겪은 사회적 차별과 아픔에 애도하는 사회가 찾아온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나만의 답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볼룸 문화와 하우스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볼(Ball)’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라틴 아메리카인 퀴어들이, 사회적 성별 고정관념에 들어맞지 않는 옷을 입고 치장하며 멋있는 사람을 겨루는 행사로 시작되었다. 이는 1960~1970년대에 런웨이, 패션, 보깅 등 여러 대결 카테고리로서 서로 겨루며 퀴어하고 ‘색다른’ 자신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뽐내는 ‘볼룸(Ballroom) 문화’로 발전하게 된다. 볼은 주로 ‘하우스(House)’에 의해 개최되었다. 하우스는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서 길거리에 내몰리며 가족과 주변인의 폭력에 시달리고 갈 곳이 없던 퀴어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하우스는 원가정의 대안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하우스에 소속된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살뜰히 돌보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한’³⁾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며 폭력에 맞섰다.

결과적으로, 하우스에서는 아프고 폭력에 휩싸인 서로를 돌보고 애도하는 동시에 웃고 춤을 추었다. 이 하우스 및 볼룸 문화는 영화 ‘파리 이즈 버닝(Paris is Burning, 1991)’, 서바이벌 프로그램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Rupaul’s Drag Race)’, ‘레전더리(Legendary)’ 등을 통해 영미권에서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졌다. 동시에 그 출연자들이 겪은 아픔과 폭력, 하우스 문화의 애도도 조명을 받으면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소수자 차별에서부터 HIV 감염인 차별, 유색인종 차별 등 여러 소수자성 혐오에 대한 많은 대중적 반성과 사회적 애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3) 안전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허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모든 폭력을 막겠는가. 하지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 노력과 기민함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과 기민함이 계속되는 것이 허상처럼 보이는 ‘안전한’ 공동체를 세상 곳곳에 위치시키는 데에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영화 ‘파리 이즈 버닝’의 포스터.



‘레전더리’의 포스터.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 올스타 시즌 9'의 포스터.

하우스 및 볼룸 문화는 21세기가 되어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물론 해외의 것을 참고하여 들여왔기 때문에 창시된 배경이나 맥락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의 '너나 해' 무대나,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댄서이자 한국의 하우스인 '하우스 오브 러브'의 마더(Mother)⁴⁾ 러브란(Love Ran)의 출연으로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나는 한국의 하우스들이 개최하는 볼을 자주 보러 다니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나와 비슷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자신을 뽐내는 광경과,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하다.

4) 속히 말해 하우스에서 '엄마'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 자신보다 늦게 하우스나 볼룸 문화에 입문하는 성소수자들을 '칠드런(Children)'으로 두고 돌본다. 보통 여성으로 정체화하거나, 여성성을 강조하는 드랙을 선보이는 사람, 즉 드랙퀸이거나 하는 경우 이 호칭을 쓴다.



'퀸덤'의 '너나 해' 무대의 한 장면, 앞 열의 댄서들은 모두 한국 하우스 소속이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러브란이 출연한 한 장면, 가운데 인물이 러브란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나는 그 이면에 있는 슬픔을 안다. 다르다고 질타받는 아픔, 사회에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겪는 폭력. 이 볼룸을 나가 길거리를 걷고 사회 속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볼룸을 즐기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볼룸 속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알리고 해소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사회에 소수자성을 드러냈을 때 애도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존재

는 퀴어함으로 인해 질타를 받는 존재들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예시들을 넘어서도 수많은 각기 다른 존재들에게는 비장애 중심 사회에 의한 폭력, 노동 형태에 따른 차별, 민족이 다르다고 가해지는 폭력 등 수도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 모든 소외당하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애도’를 달성하는 건, 우리 사회가 몇십 세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완벽히 이루어내지 못한 일이다. 이 일은 지날 것이고, 많은 이를 소진시킬 것이며, 사실 완벽히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⁵⁾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기쁜 상상이 하나 있다. 나는 우리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하우스, 거대한 볼룸이 되어갈 수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변하기를 바란다. 하우스 속 존재가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을 다 함께 받아들이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자리 말이다. 이 모든 비극과 폭력의 이야기가 활발히 공유되어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라는 볼룸 속에서 잊히고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우스에 속한, 볼룸에 참여한 모든 자의 슬픔에 자리를 같이하는 모든 존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같이 우리의 세상을 바꾸어가 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를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미래에서는 볼룸 속을 당당하게 활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회를 멋있게 횡단하는 삶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런 미래에서는 누구나 이 험난했던 볼룸 속을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멋있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슬픔과 애도와 대놓고 함께하는 삶들이 가득해지는 곳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 더 많은 눈물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 신명 나게 춤출 수 있으리라.

5) 완벽히 달성하였다 믿는 순간, 우리가 누군가를 지우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미지 출처(본문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Julie Kratz. “An Allyship Guide to Celebrating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Forbes, 2023.11.20., <https://www.forbes.com/sites/juliekratz/2023/11/20/an-allyship-guide-to-celebrating-transgender-day-of-remembrance/>.

조각보. “TDOR 메모리얼 파티 <그리고, 춤추자> : 프로그램 소개”. <https://transgender.or.kr/29/?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6896659&t=board&category=8KAIWkI04e>.

“In the Name of Love: Paris Is Burning (1991)”. gateway film center, <https://gatewayfilmcenter.org/movies/paris-is-burning-1991/>.

“Legendary”. IMDb, https://www.imdb.com/title/tt11048090/?ref=tt_mv_close.

Stephen Daw. “Queens to the Rescue: ‘RuPaul’s Drag Race All Stars’ Season 9 Reveals Official Cast & Release Date”. billboard, 2024.04.23., <https://www.billboard.com/culture/pride/rupauls-drag-race-all-stars-9-cast-release-date-1235663802/>.

Mnet K-POP. “[풀버전] ♪ 너나 해(Egotistic) - AOA @2차 경연 컴백전쟁 : 쿼덤 3화”. 유튜브, 2019.09.12., https://www.youtube.com/watch?v=n-w_ski7mt0.

Mnet K-POP. “[EN/JP] [스우파/5화]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연’ 라치카 퍼포먼스 비디오 @메가 크루 미션#스트릿우먼파이터 | Mnet 210928 방송”. 유튜브, 2021.10.01., <https://www.youtube.com/watch?v=P5YVn93Ofk>.



참고문헌

루인.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 두려움과 혐오 폭력”. 『판결문과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성적 소수자 대상 ‘혐오 폭력’의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5.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용주골 강제폐쇄 대응(2023~2024)”.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티스토리, <https://sexworkproject.tistory.com/category/%EC%9A%A9%EC%A3%BC%EA%B3%A8%20%EA%B0%95%EC%A0%9C%ED%8F%90%EC%87%84%20%EB%8C%80%EC%9D%91%282023%7E2024%29?page=3>.

이예진. 「국내 보강댄스 유입 및 댄스 장르로의 정착 - 한국 볼 문화를 기반으로」. 석사 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2023.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TDOR 메모리얼 파티 <그리고, 춤추자> : 프로그램 소개”. <https://transgender.or.kr/29/?q=YToxOntzOjE5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96659&t=board&category=8KAIWki04e>.



70호 기념 특별 문답

정리정돈: 편집위원 비상

문우의 70호 발간을 기념하며, 편집위원들끼리 소소하게나마 특별한 문답 기획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70’에서 연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로부터 파생된 질문과, 그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답이 이어집니다.

1. 고희

고희: 고래(古來)로 드문 나이란 뜻으로, 일흔 살을 이르는 말. 두보의 <곡강시(曲江詩)>에 나오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이 말이 나오게 된 곡강시의 부분을 보면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되어있는데, 직역하자면 예로부터 사람이 일흔까지 사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우가 70이라는 드문 숫자까지 많은 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우리가 바라는 앞으로의 문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상: 공동체 내의 합의된 PC주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문제도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끝까지 혁명하자! 끝까지 Riot으로 남자~

도토리: 문우의 오랜 역사 속 한 장을 함께하게 돼서 의미가 뜻깊습니다. 운동주 시인이 그랬듯이, 시대 속에서 지워지는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단(丹): 문우가 보금자리를 찾는 모두에게 한없이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상처입히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다정한 공동체가 이어지길 바란다. (+ 비상 말에 500% 동의 ^_^)

튜브: 지금처럼 편안하고 부담 없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감상대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공동체로 남아주길

유연: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이기를! 비록 지치고 힘들어도 서로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걸 멈추지 않기를! 귀동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공부하고 책은 읽고 싶지만, 학회는 부담스럽고 같이 쿼퍼 갈 친구는 사귀고 싶고 술 마시는 건 힘들고 오타쿠 친구는 사귀고 싶지만, 오타쿠 동아리는 꺾

끄러운... 아이들이 대학에서 마음 둘 곳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문우였으면 좋겠다!

데어: 문우가 저에게 편안한 공간이라서 좋아요. 앞으로 문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편한 곳에 발 딛고 서서 위험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글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도: 그저 지금처럼 편안하고, 존중하며,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부담 없이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길 바라요.

어푸: 잘 먹고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고 힘닿는 만큼 투쟁하면서 쪽쪽 이어가요

2. 칠순 잔치

칠순 잔치: 문우가 70호, 칠순이라는 숫자까지 발간되어 온 것을 축하하며, 문우의 칠순을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칠순은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는지 적어 봅시다!

비상: 주민등록증에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가 없었으면 좋겠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등록'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토리: 지금보다 폭력이 줄어든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적,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감소한 세상ियो. 사람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丹): 인간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ex.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강박과 불안,

구조적 폭력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등등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행복을 큰 노력 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튜브: 같은 인간이라기엔 너무 xxx들이 많은 지금 세상과는 달리 혐오와 무지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이유 없는 비난과 폭력이 사라지고 다정함이 가득한 세상이면 조켄네요.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믿을 만한 사법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공권력이 바로 선 세상이길.

유연: 내가 칠순이나 되었을 때는 이 지긋지긋한 입시제도도 대학 서열화도 없어졌을까? 지금보다 덜 더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음. 내가 걱정하는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된 세상은 어떤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신병 있는 아이들이 편하게 정신과를 갈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데어: 칠순이 되면 아무래도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시력도 체력도 그밖에 여러 문제들도~ 우리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단점이나 약점이라고 생각되지 않기를.

산도: 칠순이 되면, 그때만큼이라도 제가 원하는 편안한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부터 '편안하고 폭신한, 잔잔한 세상'을 원한다며 마치 저의 슬로건 문구처럼 메모장에 적어두곤 했는데... 웃는 나날만 바라는 건 아니니 울고, 화나고 짜증 나더라도 이 모든 게 잔잔히 흘러갔음 좋겠어요. 잔잔히 흘러간다는 건,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을 구석이 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처럼 편안히 그 기분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

어푸: 나의 칠순? 울여름이 너무 더워서 칠순의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조금 무섭네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불평등하고 혹독한 멸망이 두려운 매일이예요... 하지만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칠순에 지게 될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세상을 같이 가꿔나가 봅시다...

3.70

70이라는 숫자는 찌르는 형상(7)과 동그란 형상(0)이 같이 있는 형태로 표기되는데요. 이런 70처럼,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관점과 동시에 모두를 동글게 감싸안을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카로운 관점 하나와, (각자 실천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둥근 연대를 하나씩 적어봅시다!

비상: 누가 굉장히 짜치는, 헛소리, 를 하면 하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정색.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 너무나도 다양한 집단이 쿨어지만, 어떤 쿨어든 간에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토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할 수 있는 날카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가치관과 경계를 존중하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丹):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연하게 내뱉는 사람에게 '그거 아닌데?'라고 하는 중. 말하기 전의 긴장보다 말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가는 중. /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이들을 좋아해. 모든 부분을 긍정할 수는 없겠지만, 너의 '살아감'을 응원해.

튜브: 모두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노골적인 비난에 대해 비판하고 끊어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평소 표현을 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 동의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신고 버튼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청원 동의를 꼬박꼬박 하는 편입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연: 아무래도 난 마음속이 쉽게 날카로워지는 사람인데,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 날카로움이 누구 혹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어딜 향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날만 세우는 마음을 잘 가다듬어 정확하게 ‘찌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 내가 지치고 여유 없는 상황이라 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 내려버리지 않기! 사람을, 삶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내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지키고 싶은 연대의 마음이다~

데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질문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우는 언론단체이니 예를 들자면,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이 공정한 보도인지, 언론이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꾸준히 질문하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기. 남을 포기하지 말기. 친구들을 믿는 만큼 다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기.

산도: 문제를 발견하면 다 같이 바라보기라도 했으면. 그리고 나 또한 조금은 날카로워지면 좋겠다! 어느 부분은 끊어내야 하고 어느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싶다. / 개인의 힘으로만 어떻게든 해 보려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힘을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각자가 가진 힘의 양은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언제든 재생될 수 있으니 선뜻 나누어주면 좋겠다.

어푸: 나의 생각과 자리가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있는지를 날카롭게 돌아보고, 나와는 다른 존재를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들여다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문우의 눈



선이의 함정

수습편집위원 산도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아슬픈 동정

평소에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어려움 까지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있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 배경이라는 이유로 출신 국가에 대한 편견 또는 선입견을 자주 직면했고 의도치 않게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손찌검을 받는 등 부정적인 시선과 마주하곤 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저 지켜만 보거나 사실은 동정에 가까웠던 정돈되지 않은 위로를 건넨 것이 그 친구에게 상처로만 남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중국 국적의 부모님을 두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다. 친구의 거주 국가는 한국이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결혼 이주 민이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중국어로 소통했던 터라, 친구가 나와 같은 중학교로 전학 왔을 당시엔 인사말과 간단한 의사소통만 한국어로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친구의 부모님은 오직 중국어로만 소통이 가능했다. 그러던 중, 학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가 자녀에 관해 상담을 나누는 시기가 되었다. 나와 다른 친구들은 해당 친구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부모님 또한 한국어로 소통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에 한국인 담임 선생님과 상담이 수월하게 진행될지 의문을 가졌다. 그렇게 오지랖 넓은 우리는 이 의문점에 대해 당사자를 빼놓은 채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한국어를 못하는데 왜 굳이 한국 학교에 와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지? 부모님 중 한 분이 중국인이니, 중국 현지 학교에 다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등 온갖 선부른 판단을 담은 결론에 도달했다. 마지막엔 이러한 의문도 나왔다.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중국인 아니야?’

그 와중에 나는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고 친구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아, 네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학부모 상담 때 담임 선생님 말고 중국어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부탁하는 게 어때?” 초등학교이던 나는, 이 제안이 나름 도움이 되고 배려심 있는 제안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막상 친구는 당황스러워하며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이다.

후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 당시 내가 건넨 질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친구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뜰이나 한국어가 서툴러 모든 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할애하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지적하며 온갖 판단을 내리고, 본인의 부모님 상황까지 고려하여 떠드는 상황이 자신에게 더욱 선을 긋는 것 같았다고 했다. 후에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게 되어도, 과연 내가 그 친구들과 같은 위치에서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언제나 나는 한국인, 중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게 되고, 이 점이 다른 친구에게는 차별점이 되어 결국 영원히 그들에게 완벽히 녹아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말이다.

내가 당시 건넸던 서툰 제안은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짚어내는, 친구에게 그저 좌절감을 주는 제안이었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담임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과 그저 많은 과목 중 하나인 중국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같을 수 있겠는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이라는 사소하고 당연한 기회마저 그 친구는 박탈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해당 일이 있고 나서, 새로 만나게 된 다문화가정 친구를 대할 때면 그 친구에게 저질렀던 실수가 자꾸 떠올랐다. 최대한 '다문화가정'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없애려 노력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단어가 자꾸만 내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한국어 실력이 다른 친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문화가정'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족한 것이라 단순히 생각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더 이상 그들에게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그리고 모순

우리는 지금도 많은 다문화가정을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당장 자신의 주변에는 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꼭 자신의 지인이 아니더라도 TV나 SNS를 보면 최근 큰 인기를

얻는 조나단과 파트리샤 남매 같은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다문화가정의 존재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조나단은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90만 명이 넘고 있어 예능 대세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인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던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공존하는 것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외국인 유입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의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와 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의 이주를 받아들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이 증가했고 이들과 이룬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한국은 외국인 거주자 100만 명이 넘는, 이른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개념은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 등의 자민족 중심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한 것이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사회통합정책'을 통한 정부로부터의 '다문화' 개념 도입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다문화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모순을 가져왔다.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의 시민권 문제와 가족 당사자의 문제를 배제한 채, 새로이 구성된 가족을 유지하는 것과 '출생률'에 기여하는 아동 양육만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의 가족, 즉 타국에서 온 이주민의 부모나 가까운 친척을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려우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속 타국에서 온 당사자는 본인의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데, 이들의 정서적 문제는 다문화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이 발생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법적 보호 없이 곧바로 체류 자격을 잃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정 당사자의 개인적인 권리나 안전보다는 결혼을 통한 가족 유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문제로 지적된다.

즉, 한국 정부는 이들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그저 사회 걸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생계유지 지원이나 충분한 교육 제공, 특별 지원 등의 정책으로 말이다. 돈을 많이 주고, 교육의 권

리 등만 충족시켜 주면, 그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여전히 순혈주의에 근거한 것이며 그들이 '우리'에 '동화되기를' 원한 결과였다. 결국 당사자인 결혼 이주자와 다문화가정은 정책 결정 및 주요 사회 담론에서 그저 주변인으로 남게 되었다.

다문화의 낙인 효과, 그리고 인식의 부재

한국에서는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속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출신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편견과 차별이 드러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경우 비백인인 경우가 많으며,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결혼'과 '취업'을 위해 이주한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표현과 혐오 발언에 쉽게 노출되었다. 다문화가정은 '취약 계층'과 동일시되었고, 모든 '취약 계층'이 그러하듯 그 취약함이 그들을 차별할 구실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호칭은 '차별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혐오는 사적인 공간을 넘어 공적인 공간에서도 심심찮게 자행되었다. 일례로, 2007년에는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단체가 만들어지고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한 반(反)외국인 시위를 진행하였다.¹⁾ 혐오는 산불처럼 번져, 정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 최초의 귀화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이자스민의 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등장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반(反)다문화 커뮤니티도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인종과 계층의 위계적 질서를 작동시키는 은밀한 기제"²⁾로써 작동하며, 차별적인 사회적 낙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주민, 다문화가정 그리고 난민 등 타국 출신으로 한국에 이주·정착한 자에 대한 (혹은 새로운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혐오, 편견 그리고 차별의 방식이 다양하게 생

1) 정용인.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은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주간경향, 2008.01.01,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16441.

2) 황경아. 「반다문화 담론의 부상과 언론의 재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반다문화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4호, 2017, 143-1

산되는 가운데, 한국 주류 사회는 자신이 인종차별과는 거리가 있으며, 심지어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은 인종차별의 피해자로만 자리매김 되었고 한국인이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염운옥 2019: 4)

2000년대 이후 실시된 다문화 정책 및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 1세대³⁾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개선되지 않아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며, 일부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면화되어 힘들을 겪고 있다. 또한 매일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표면적으로 비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종주의의 일상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한국 사회는 때때로 스스로를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여기거나, 인종차별과는 무관한 사회로 여긴다. 또한 인종주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과시하는 위선적인 태도라고 역으로 비난한다. 특히 반(反)다문화 및 반(反)난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종차별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하여 자신들의 판단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때 차별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이것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믿음에 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을 쉽게 발견할 뿐이다.” (김지혜 2019: 11)

3)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님

한국 사회의 고전적 인종주의, 그리고 신인종주의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부인 및 역 비난의 논리는 고전적 인종주의에서 비롯된다. 고전적 인종주의는 이른바 피부색 등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인종을 구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서열에 뿌리를 둔 차별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고전적 인종주의의 논리—동양인은 ‘낮은’ 서열인—에 따라 한국인이 여전히 인종주의의 피해자라고 여기곤 한다. 혹은 ‘동일한 인종’으로 분류된 동남아 출신 다문화가정 또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은 인종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

“피부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담론적 탈 인종화’라는 논리로 한국 사회는 인종차별과는 무관하다는 환상을 유지한다.” (김현미 2020: 298)

그러나 인종주의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21세기의 인종주의는 고전적인 인종주의와 같은 극단적 형태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 즉 ‘신인종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신인종주의는 피부색이나 유전적인 차이보다도 문화적 특성과 차이에 주목하고,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의 주 집단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방식의 인종주의이다. 즉 신인종주의에서는 구별된 ‘인종’에 더해, 해당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와 같은 개개인의 편견과 같은 문화적인 지표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혼혈인, 이주민, 난민의 삶에 외모, 말투, 옷차림의 문화적인 요인이 더해져 그들을 위협집단으로 고착하는 데 시민 모두가 동조자였음을 확인해 준다.

“인종 없는 인종주의라는 프레임.” (Balibar 1991: 17-28)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실천되며 제도화되는 한국 사회의 신인종주의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인종주의는 일상적 인종주의의 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일상적 인종주의의 발현형식은 크게 애매한 소속감과 프레임, 지나친 조심성과 언짢은 칭찬, 행정적 차별과 불편함으로 나뉜다.

애매한 소속감, 그리고 언짢은 칭찬

위의 여러 발현 유형 중에서도, 특히나 애매한 소속감과 프레임, 지나친 조심성과 언짢은 칭찬은 의도되지 않은 인종주의,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모습을 한 채로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자연스럽게 한국인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게 하고, 다르게 취급하며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경험케 한다. 여기에는 사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국내 출생의 자녀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미묘하게 다르게 대하는 시선과 불편해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거나, 한국 문화에 잘 녹아들었다는 칭찬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러한 말을 내뱉은 사람은 정말 좋은 의도로, 칭찬을 해주려고 의도했을지라도 다문화가정 청년에게는 그저 ‘언짢은’ 칭찬 정도로 들릴 것이다.

아무리 다문화가정 청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고, 이를 충분히 수용하더라도 여전히 비한국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애매한 소속감’을 지닌다. 분명 한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당하며, 외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 취급을 당하니 말이다. 도대체 본인을 내국인으로 받아 줄 국가는 어디인가 고민하며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필자의 경험에서도, 분명 해당 친구는 한국인이며 후에는 한국어도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친구들과 본인 사이에는 영원한 벽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도 이러한 애매한 소속감의 결과이다.

“언제나 나는 한국인, 중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영원히 그들에게 완벽히 녹아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에는 그들을 한국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외부

인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차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어색해하고, 눈치를 보고, 거리를 두는 식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이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려는 한국 사람의 태도가 그들의 내면에 내재하여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라는 ‘꼬리표’, 그리고 글로벌 인재

다문화가정 자녀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잘 알고 관련 음식을 먹을 것으로 가정하며 그들을 ‘외국인’ 범위로 떠미는 행위 또한 빈번하다.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타자화시키는 고정관념으로 다가오고, 다양한 배경과 개인차가 존재함에도 다문화라는 단어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지어 버리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시작부터 ‘다문화’라는 호칭을 달고 세상에 등장하며, 사회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다문화의 새로운 ○○’로 불리게 된다. 한국 부모님 한 분 그리고 외국인 부모님 한 분. 그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다문화 출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보통의 학생과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불리며, 성장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를 할 때도 ‘다문화 장병’⁴⁾이란 명칭을 얻는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외국인 부모의 출신 국가 및 언어를 중점으로 하여 이들의 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은 언뜻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언어와 문화의 특징을 전체화하여 대상을 일종의 도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라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언어라는 재능을 가져 사회

4) 박형운 외. “2025년 ‘다문화 장병’ 1.5만명… 한계 사단 책임진다.” 서울경제, 2023.05.17,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M67DNQA>.

발전에 도움이 될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언어능력 때문에 사람들, 또한 미디어 속에서는 다문화 2세대를 타국 출신 부모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글로벌 리더’, 어머니 나라와 한국을 이어주고 1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중재자’, ‘해결사’ 등으로 표현한다. 이렇듯 타국 출신과 언어를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꼬리표를 다는 일이기에 차별 행위의 시작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언짢은 칭찬’, ‘애매한 소속감’과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어를 잘한다’,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잘하니?’와 같은 질문은 표면적으로 차별적인 의도를 내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우리 한국인’의 주변적 위치에 두는 발언이다. 또한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글로벌 인적자원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여겨지지만,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지속적인 질문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적절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다시 글로벌 인재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으로 변환시킨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구사 능력, 제2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수 자원으로 여겨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추진 사례가 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이중언어 역량을 키울 것을 강조한다.⁵⁾ 이는 외국어에 능통한 이민자와 이중언어가 능통한 다문화 2세대를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언제든지 환영하는 ‘유용한 이민자’라고 간주하는 서술이다. 또한 이는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정해진 영역에서만 활약할 때 한정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적 환대라고도 볼 수 있다. 일상적 인종주의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글로벌 인재, 자원 등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다문화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만 인정되며,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외국인 부모의 특성에 제한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이지혜. “다문화자녀를 국제적 인재로… 여가부, 이중언어 학습지원 강화.” 코리아넷, 2023.08.04,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5712>.

‘다문화’, 그리고 모두의 태도

그러면 ‘다문화’라는 틀과 인종주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문화’라는 단어의 폐지도 일종의 해결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하지만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기에 많은 이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호명만으로는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에서 생산하는 다문화가정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또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인종주의적인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인종주의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곳에서부터 변화할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다문화 당사자의 변화와 실천도 필수적이다. 다문화 또는 새로운 용어가 일상적 인종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직접 실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본인마저 일상적 인종주의를 수용하고 본인이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본인을 더더욱 외부인으로 만들 뿐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저 사소한 방안 하나가 제도 개선이나 용어 개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믿는다. 사소한 방안이라 함은, 평소 일상에서 말하고, 듣는 과정을 거칠 때 농담처럼 던지는 사소한 말에도 차별과 혐오가 깃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행위이다. 앞서 필자의 경험에서도, 해당 다문화가정의 친구와 조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했다면, 서로의 입장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주는 행위를 했더라면, ‘중국어를 더 잘 하니 담임 선생님과 상담 대신 중국어 선생님과 상담하는 게 더 좋을 거야’와 같은 설부른 판단과 어설픈 제안은 하지 않았으리라. 당사자는 쏙 빼놓은 채 나눈 대화는 그저 우리를 인종주의와 한 발짝 가까워지게 할 뿐이었다. 어설픈 제안을 하기 전에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 위해 한국어는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에 대해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참고문헌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김현미 외. 『어떻게 국민은 난민을 인종화하는가?. 갈무리, 2020.

염운옥. 『낙인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황경아. 『반다문화 담론의 부상과 언론의 재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반다문화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권, 4호, 2017.

박형윤 외. “2025년 ‘다문화 장병’ 1.5만명…한개 사단 책임진다.” 서울경제, 2023.5.17,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M67DNQA>.

이지혜. “다문화자녀를 국제적 인재로… 여가부, 이중언어 학습지원 강화.” 코리아넷, 2023.08.04,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5712>.

정용인.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은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주간경향, 2008.01.01,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16441.

Balibar. Is There a ‘Neo-Racism’?. London & New York: Verso, 1991.

천막을 붙잡아 세우며

: 2024년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아카이빙 기획기사



0. 2024년 연세대학교

올해 3월부터 학교의 청소·경비노동자는 붉은 조끼를 입고 일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대폭인상, 원청이 책임지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백양로를 잠시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노동자들은 조끼를 입고 외쳤다. 외침에 답하지 않는 학교의 답변을 듣기 위해, 7월 1일에는 언더우드관(이하 본관) 앞에 천막을 세웠다. “진짜 사장 연세대학교가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를 피해 본관의 교직원들은 건물의 모든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폭염과 습한 날씨에 오래된 목조건물에서는 유기물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관 앞의 노동자들은 농성을 이어 나갔다. 폭염에는 부채를 부치고 온몸에 모기 기피제를 뿌리며 본관 앞을 지켰다. 강풍으로 천막이 쓰러진 밤까지.

1. 7월 11일 공공운수노조×공대위 합동 간담회 <본관에 천막이 생겼다>

편집위원 유연과 데어는 7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와 연세대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위한공공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합동으로 기획한 간담회 <2024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설명 간담회: 본관에 천막이 생겼다>를 찾았다. 본래 간담회는 천막이 세워진 본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찌는 듯한 날씨에 조금이라도 그들이 있는 본관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무 명 남짓으로, 홍보가 일주일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했음을 고려하면 제법 많은 수가 모인 셈이었다. 학생들의 소속과 참여한 이유는 다들 달랐지만, 땀을 흘리고 부채를 부치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이류한승 조직부장이 작년과 달리 천막 농성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했다. 2023년 11월 29일, 2024년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집단교



섭이 시작되었다. 교섭에는 연세대학교를 포함하여 서울지역 대학·빌딩 사업장 14곳을 관리하는 17개 용역업체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참여했다. 노조 측의 요구안은 기본급을 570원 인상하고 식대는 2만 원, 상여금은 25만 원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용역업체 측은 “임금을 제시할 재량권이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 측에 있다”라고 하며 1~5차 교섭 내내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6차 교섭인 2024년 2월 6일이 되어서야 기본급을 50원 인상하고 식대와 상여금은 동결하겠다는 안을 들고 왔다. 7차 교섭인 2월 20일에도 용역업체 측은 한 달 1만 원에 남짓할 뿐인 기본급 50원 인상이라는 안을 고수했고, 노조는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도 양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월 2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밥 한 끼를 지키는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합원은 붉은 투쟁 조끼를 꺼내 입었다. 학관 앞에는 요구안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고, 점심시간에는 백양관 앞에서 피켓팅을 했다. 향의차 총무처 본관을 방문하기도 했고, 백양로를 따라 행진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쟁을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나서 6월 20일에 재개된 교섭에서도 용역업체가 들고 온 안은 변함없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 다방면으로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갔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기에, 조합원은 본관을 찾아와 천막을 세우고 농성에 돌입했다.

간담회에서 조직부장이 꼽은 2024년 천막 농성의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인상이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는 호봉 상승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임금 조정이 필수적이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 2023년 3.6% 올랐고, 생활물가는 2023년 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은 12.8%에 달하고 있다. 생활물가와 공공서비스 요금 전반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임금 동결, 내지는 기본급 50원 인상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

2023년 11월 29일부터 이루어진 집단교섭에서 노조 측의 임금 요구안은 기본급 570원 인상, 식대 2만 원 인상, 상여금 25만 원 인상이었다. 이 중에서도 올해의 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식대 인상이다. 월 12만 원이라는 금액은 2020년에 책정된 것으로, 이후 물가가 치솟고 실질적인 식대의 기능을 할 수 없음에도 해당 시점에 동결되어 그 이후 오른 적이 없다. 국공립대는 공무원에게 월 14만 원의 식대를 보장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서울캠퍼스의 경우 최근 청소·경비노동자의 식대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월 1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의 한 끼 식대를 계산하자면 2,7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700원. 학교에서 구내식당 이용은 커녕 김밥 한 줄도 사 먹을 수 없는 금액이다.

둘째,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3인 공석의 인원 충원이다. 연세대학교의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존재한다.

단체협약 제34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

④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7일 이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단, 조합에서 추천하는 자가 없을 경우 회사는 결원 인원의 임금 총액을 대체로 근무하는 해당 건물의 조합원에게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

2023년 12월 31일, 중앙도서관에서 두 명, 과학원에서 한 명의 청소노동자가 정년퇴직했다. 위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 공석을 7일 이내에 채워야 한다. 그러나 연세대분회의 인원 충원 요구에도 반년이 넘도록 공석이 충원되지 않았고, 학교는 해당 문제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당연하게도, 해당 구역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업무가 과중해지고 건강이 악화하여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되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상황에서 연세대학교와 해당 구역의 용역업체는 한참이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일이 되어서야 공석 세 자리의 인원을 충원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 지시 의혹에 관한 원청의 책임 확인이다. 연세대학교는 청소·경비노동자와 관련한 책임을 모두 용역업체에 떠넘기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간담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지배력이 원청인 연세대학교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를 여럿 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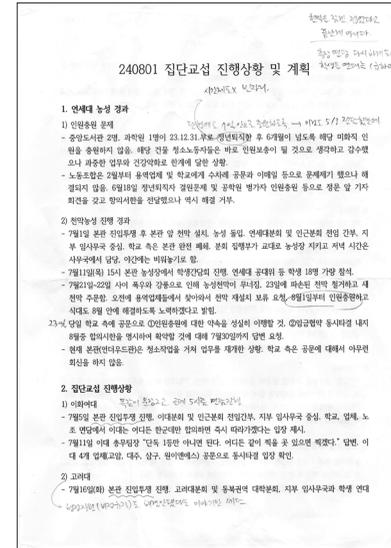
일례로, 용역업체인 청우티에스의 현장소장은 외부 구역에서 청우티에스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조합원을 전화로 불러낸 뒤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총장님이 세브란스에서 오시기 때문에 민노(민주노총)에 예민한 분이이라 여기 가입해 있으면 안 좋게 보니까 하지 말라”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소장은 이후에도 “총무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절대 노조에 가입시키지 말라고 했다”라며 노조 탈퇴 종용을 이어갔다. 용역업체가 노조 탈퇴 지시의 맥락으로 원청의 입김을 지목한 상황에서 연세대분회 측은 용역업체에 노조 탈퇴를 지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총무팀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 그러나 총무팀은 무응답 또는 내부 사정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변명 뒤에 숨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한 소장에게 대한 조치도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류한승 조직부장의 말에 따르면 용역업체의 태도는 일관적이다. 업체에서는 단독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도 없고, 퇴직자가 발생해도 즉각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원청이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책임과 지배력은 원청에 있다. 원청이 책임지고 나서지 않으면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개선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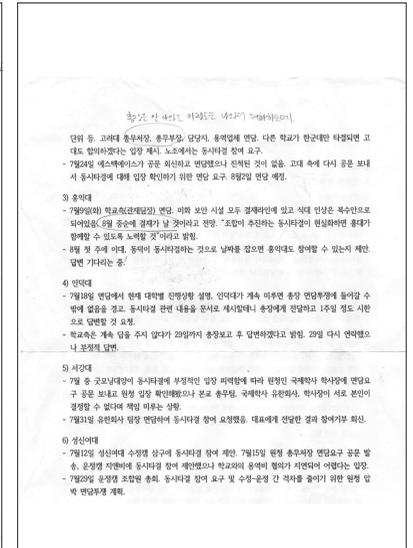
2.8월 1일 <상황공유를 위한 작은 간담회>와 인터뷰

그렇다면 노동자가 본관에 직접 찾아가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후 교섭 상황은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천막이 쓰러진 뒤로 연세대분회에서는 어떻게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을까?

8월 1일, 천막 투쟁의 세부 사항과 경과에 대해 학생들과 공유하는 간담회 자리를 찾았다. 노천극장 1층 한편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은 노조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가득 모기향을 태우는 냄새가 났다.



간담회 자료 1쪽



간담회 자료 2쪽

간담회 자리에서 이류한승 조직부장은 참여자에게 집단교섭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해당 자료에는 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등 타 대학 중 어느 대학이 집단교섭에 협조적이고 어느 대학이 그렇지 않은지, 교섭에 앞서 이들이 내세우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가 임금을 집단교섭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집단교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에서 다른 학교들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약 1,200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서울지역 14개 대학¹⁾의 17개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와 초기업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그 대학사업장 중 하나이며, 집단교섭을 통해 협약이 체결된다면, 대부분의 대학 비정규직이 비슷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게 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²⁾하에서 교섭권을 박탈당한 중앙대, 서울여대, 세브란스병원의 노조에도 거의 동일한 협약이 적용된다. 그렇기에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 조정 관련 교섭 타결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며, 노동조합과 사측이 만나 교섭을 이뤄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중대사안의 물꼬를 트는 일을 대학들이 서로에게 미루면서 교섭 타결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을 지난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학이다. **집단교섭을 집단회피하는 대학 본부들이 문제다.**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연세대분회의 활동가와 천막 농성의 쟁점과 청소노동이라는 일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본관을 천막 농성의 장소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그 목적과 효과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류한승 조직부장은 본관을 찾아간 의도 중에서도 '압박'이 중요했음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생긴 만남과 단절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다.

어푸 처음에 본관 앞에 천막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관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관은 목적으로 갈 때가 많고 그 옆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 학생이나 교직원을 맞닥뜨리거나 가까이서 대면한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이류한승 물론 학생이나 교직원을 많이 만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농성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교를 압박하는 거예요. 학교를 압박해서 '우리는 총장님 또는 적어도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관철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장소는 본관 앞이었어요. 본관에 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총장실이 있고, 본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요. 방학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이나 교직원을 많이 마주칠 수 없다는 것은 각오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천막을 설치함으로써 본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보직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본관에 안 오게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오던 사람들이 안 오게 되는 이것도 변화인 거고.

데어 이 농성은 학기 중 백양관 앞에서 진행했던 집회랑은 성격이 많이 다른 걸까요?

이류한승 학기 중에는 백양관 앞에서 농성을 하지는 않았고 선전전을 휴게시간마다 했었죠.

어푸 선전전은 농성에 비해 사람들에게 좀 더 드러나기 위한 활동일까요?

이류한승 선전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때도 저희는 수업을 절대 방해하지 않으려고 되게 신경을 썼어요. 원래 쟁의행위라는 거는 정상적인 업무의 진행을 방해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정상적인 업무는 수업이지만, 재작년에 고소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수업만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되게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되게는 백양관에 있는 총무처, 그다음으로는 본관에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총장, 부총장 이런 사람들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더 컸죠.

이류한승 조직부장이 언급한 '고소 사건'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연세대 재학생 A씨가 집회에 민형사상 고소를 한 사건을 가리킨다. 2024년 2월, 청소·경비노동자 측의 승소로 사건이 일단락되긴 했으나, 이 사건으로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은 오늘날 노동자와 학생이라는 집단이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기에 조합원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최소화"하려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서명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간식 나눔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투쟁 상황이나 투쟁 이슈가 뭔지를 알리는

1) 집단교섭 대학사업장: 고려대, 고대안암병원,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강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인덕대, 카이스트, 홍익대 (소수노조: 중앙대, 서울여대, 세브란스병원)
2) 해당 사업장들에서는 민주노총이 소수노조이고, 한국노총이 다수노조인 상황이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류한승 조직부장은 설명했다.

운동의 반경이 청소·경비노동 바깥으로 뻗어 나가기 어려웠던 것은 “밑바닥 노동자 취급을 받다 보니까”, 누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는 구조에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공동체와 충돌하고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험 끝에 “이제 그런 구조적 조건에서 다른 대학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단다”라고 느끼고, 대학 노조, 대학원생 노조, 비정규 교수 노조 등 학교 공동체에 속한 외부의 노조를 만나보는 등 노동과 관련한 고민의 저변을 넓히고 있었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이는 매년 진행되는 집단교섭에서 노조 측이 제시하는 요구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이다. 그러나 집단교섭은 거의 매년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 올해의 교섭에서는 6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용역업체가 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서부터 교섭 타결을 어떻게든 미뤄보고자 하는 사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용역업체만 소극적일까? 원청인 대학 본부들도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뻔한 변명 뒤에 숨기 급급하다. 1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직부장은 이화여대가 기존에 교수하던 “연세대와 고려대가 찍어야 찍겠다”에서, “단독 1등만 아니면 된다. 어디든 같이 찍을 곳만 있으면 찍겠다”로 입장을 굽혔음을 이야기했다. 어찌다 ‘단독 1등’은 피해야 하는 불명예가 되었을까?

문우례 늘 동덕여대에서 (교섭 타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매년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동덕이 용역업체들한테 공격을 받는 거야. “너네가 도장 찍어서 우리가 그렇게 찍게 되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등을 안 하겠다. 요건은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지부에서 동시타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럿이 앉아서 하나 둘 셋, 하고 찍으면 누가 1등이에요? 누가 1등이랄 게 없잖아요. 같이 찍었으니까. 그러면 욕을 먹어도 같이 먹잖아요.

학교는 업체의 비난 때문에 원청에서 교섭을 선불리 타결시키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소·경비노동자가 한 끼에 2,7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용역업체의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뒷전일 수 있을까? ‘원청의 입장을 감안하여’ 여러 학교가 동시에 교섭을 타결하는 식으로 학교 측의 부담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음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위의 설명은 더욱 궤변처럼 들린다. 단독 1등으로 교섭 타결을 하는 것만 피하면 된다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몇몇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본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본관을 텅 비워버린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조차 확인할 수 없다. 노동자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 교섭을 진행하는 데에, 선두가 되기 위해 다투지는 못할망정 선두에 서지 않기 위해 서로 꼬리를 빼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집단교섭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금 관련 문제 이외에도 조합원이 천막 농성에서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역시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년퇴직 인원의 충원은 앞서 언급한 연세대학교 단체협약에 따르면 공석이 발생하고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와 용역업체는 7달 동안 공석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일이 되어 서야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것이다. 늦어도 한참은 늦은 인원 충원에 이류한승 조직부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어푸 오늘 아침에 추가로 인원 충원이 된 건가요?

이류한승 3명 다 충원이 된 겁니다.

테어 그건 그래도 진척이 조금 있었네요.

이류한승 저는 사실 무척 열이 받았는데요.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이렇게까지 해서야, 지금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난 8월 1일에 와서야 (인원 충원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두고 보자고 지금 이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푸 부당노동행위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묵묵부답인 건가요?



이류한승 우리가 찾아가서 면담했을 때는 총무팀 직원이 전부 바뀌어서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고, 이전 직원들한테 SNS나 메일로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노조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니 어떻게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리도 학교가 했는지 안 했는지라도 알려줘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답이 없고, 우리도 지금 당장 식대 문제나 인원 충원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못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연세대가 이런 시도를 한 게 처음도 아니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가 이런 시도를 한 게 처음도 아니고”라는 언급의 배경에는 연세대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지시 시도를 한 긴 역사가 있다. 2007년 청소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로 학생 연대체인 ‘살맛’이 조직되고 청소노동자를 설득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서 연세대분회를 조직한 이후에도 2012년 연세대학교 교직원인 민주노총이 아닌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해 노조의 무력화 내지는 파괴를 꾀했다는 용역업체의 고백이 있었고³⁾, 2018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비노동자의 근무시간을 변경해 노조에서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적도 있다.⁴⁾ 이외에도 부당하게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나 괴롭힘 등의 갑질을 방기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조합의 조직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했다.

3) 남지원, 황민국. “연대 청소노동자노조 파괴하려 대학 간부가 어용노조 설립 지시.” 경향신문, 2012.12.11.,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212112224545>. (2024.08.15. 접속).
 4) 윤자은. “하청업체 단체협약 휴지 조각 만든 원청 연세대.” 매일노동뉴스, 2018.08.1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31>. (2024.08.15. 접속).

기획 기사 TFT의 편집위원은 앞서 서술한 집단교섭과 인원 충원 문제 및 부당노동행위 지시 의혹 속에서, 동트기 전 집을 나서 학교를 치우는 실제 노동자의 존재가 학교를 어떻게 지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우리가 학교에서 누리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은 분명히 학교를 청소하는 이들의 노동이 있기에 가능하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조합원에게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황금순 위쪽 2구역⁵⁾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4시에 일을 끝내긴 하는데, 그래도 일찍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이 이쪽 1구역⁶⁾하고 2구역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한 번 아침 첫차를 타봤거든요. 타기 전에는, “첫찬데 사람들이 많겠어?” 했는데 엄청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나는 기점 부근에서 타니까 앉아서 오는데, 한 중간쯤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 이 차가 신촌에서 회차해서 가는 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내리냐, 학교 앞에서 다 내려. 다 연세대야. 다 연세대로 들어오는 거야. 나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 여기 와 가지고, 버스 타면 이미 낮익은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 안녕, 이리저. 중간에 타면 또 다 아는 사람들, 다 연세대야.

문유례 거기 버스가 4시 40분이면 늦다. 첫차가.

황금순 첫차가 4시 반인가 그래요.

문유례 나는 현장에 있을 때 차를 갖고 다녔는데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마포구청 앞에서 신호에 걸릴 때 601번이 같이 서 있거든요. 꼭 찬 버스가. 어느 날은 내가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왁스 작업을 하려고 4시에 출발해 왔어요. 그래서 오는데 그 601번 차가 마포구청 앞에서 있는 거야. 첫차래요. 그게. 또 공항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첫차를 타고 여기(연세대) 오면 4시 50분, 4시 45분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잠을 몇 시간을 자겠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어찌고 저찌다 보면 11시나 12시에 자서 한 2~3시간 정도 자고 나오지.

5) 청소노동의 구역을 나눌 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백양로 건물 쪽 삼거리를 포함하여 북쪽 구역을 칭하는 말
 6) 청소노동의 구역을 나눌 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백양로 건물보다 남쪽에 위치한 영역을 칭하는 말



황금순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문유례 저도 여태까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령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적응이 돼가요. 그렇게 4시간만 자도 적응이 돼요.
황금순 아침 일어날 시간 되면 눈이 떠져.

첫차가 4시 40분에 출발하면 늦은 거라는 조합원의 말에 웃을 수도 웃지 않을 수도 없었
 다. 학생이나 교직원, 산학협력기관의 기업체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청소 업무가 마무리되
 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는 근무 시간으로 규정된 시간보다 한참 이른 시간에 출근하
 다. 웃을 갈아입고 커피 한 잔을 겨우 마시면 곧바로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 아침은 물론 못
 먹는다. 숨도 안 쉬고 일을 하다가 8시가 넘어가면 슬슬 배가 고프지만 일을 멈추고 식사를
 할 수는 없으니 서둘러 끝낼 수 있는 일을 끝내고 9시가 넘어서야 간식이나 과일 한 개 정도
 를 먹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한다고 공학원에서 청소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회장은 말했다.
 현재 공학원에 속해 있는 청소노동자 한 사람은 평균 650명에서 700명 정도를, 최대 900
 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하는 일이 어떤 종류냐는 질문에 부분회장은 “청소, 미화 일이지”
 라고 일축했지만, 그 말 뒤에는 어느 연구실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공간을 어
 느 시간에 치워야 하는지, 어디가 어떻게 가로막혀 있고 뚫려 있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숙련됨이 있었다. 이는 ‘청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와 인터뷰 자리에서는 ‘청활’이라는 활동이 몇 차례 화두에 올랐다. ‘청활’은 농민-
 학생연대활동인 농활과 유사하게, 청소노동자-학생연대활동의 줄임말로, 청소노동이 이루
 어지는 시간에 학교에 나와 청소노동자와 함께 학교를 치우는 활동이다. 당일 인터뷰에 함
 께한 공대위의 태현은 청활에 참여한 경험을 떠올리며,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비질을 해
 도 조합원분들의 속도에 반도 미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청활에서 직접 겪은, 청소노동
 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청소노동을 업으로 삼는 노동자의 숙련도 차이는 엄청났다. 그럼
 예도 근무 시간 안에 자신에게 할당된 공간을 전부 ‘미화’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도 못 붙이고
 일한다는 말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든 완수해 내는 노동자의 전문성과 그럼에도 절대 만만
 치 않은 노동 강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3. 문우편집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에 학생들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7월 11일 간담회에서 공공
 운수노조의 활동가들은 참여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개인과 자치기구에서 청소·
 경비노동자 투쟁과 관련한 입장을 제시할 것, 농성장을 지키는 조합원이 볼 수 있게 응원
 의 마음과 생각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할 것, 식대 인상 지지 서명운동에 연대할 것. 이에 문우
 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할 것을, 학생들에게는 청소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중앙도서관 앞과 학생회관 내부에 부착했다. 아래
 는 대자보의 전문과 대자보를 부착한 사진이다.

연세대학교는 침묵으로 숨는 대신 청소노동자에게 응답하라

올해 7월 2일부터 연세대학교의 본관인 언더우드관은 텅 비어있다. 그리고 언더
 우드관 앞에는 청소노동자의 천막이 생겼다. 노동자들은 천막이 강풍으로 무너지
 기 전까지, 무더위와 폭우를 견디며 그 앞을 지켰다. 언더우드관의 교직원들은 왜 사
 라졌고, 청소노동자는 어째서 천막을 설치해야 했을까.

청소노동자는 호봉 상승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교섭을 통해서만 임금
 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
 리를 담당하는 약 1,200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서울지역 14개 대학의 17개의 시
 설관리 용역업체와 초기업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그 대학사업
 장 중 하나이다.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은 미화·주차직 시급을 현 10,190원에서 10,460원
 으로 270원 인상하고, 보안직 시급을 최저임금에서 30원 오른 9,650원으로 인상
 하고, 식대를 월 120,000원에서 14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해당 요구안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대답 없이 침묵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앙도
 서관에서 두 명이, 과학원에서 한 명이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몇 달이 지나도록 인
 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은 남아 있는 노동자의 몫으



로 전가되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 제34조, 7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청우티에스 현장소장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연세대학교 총무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용역업체와 총무처에게 수차례 확인 요청을 했으나, 총무처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당시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3월 14일 조정 불성립과 쟁의 이후 지난 6월 20일 다시 교섭이 열렸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연세대학교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7월 1일 노조가 언더우드관으로 찾아가자 연세대학교 측은 언더우드관 출입을 막았으며, 노조가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천막을 설치하자, 언더우드관을 폐쇄한 채로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무처 등은 청소노동자와 학교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인 연세대학교의 지배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사용자’를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명시했다.

원청이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상,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간접고용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청소노동자와 교섭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문우편집위원회는 7월 18일, 총무처 총무팀장에게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전화와 메일 전송을 반복했고, 7월 30일에서야 진행 중인 사안이니 취재가 불가하다는 짧은 답만 받을 수 있었다. 일련의

행태는 학교 구성원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사가 전무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총무처는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

앞서 서술했듯 노동조건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권한이 학교에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학교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자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청소노동자의 시위가 아니다. ‘다른 학교들이 (집단교섭안에 도장을) 찍으면 (우리도 도장을) 찍겠다’는 식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 청소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에 본판 폐쇄로 대응하는 것,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교무처 등,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내구성원에게 무책임한 학교가 ‘불편’을 낳는다. 학교는 학내노동자의 실질적 고용주로서 교섭에 성실히 응할 책임, 청소·경비노동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학교는 언더우드관 앞의 천막만 외면하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우리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노동하는 존재로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청소노동자와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요청한다, 이 글을 보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청소노동자와 함께할 것을.

연세대학교뿐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14개 대학사업장 노동자의 투쟁은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원청 연세대학교는 청소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응답하라. 우리는 학교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학교가 교섭에 성실히 응할 때까지, 나아가 학내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2024. 7. 30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자치언론 문/우/편/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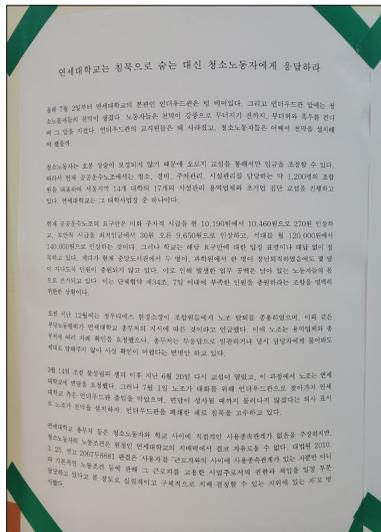




중앙도서관 앞 대자보

그러나 대자보를 부착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8월 1일, 중앙도서관 앞에 부착한 대자보가 사라졌다. 도서관에서는 관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도서관을 청소하는 노동자는 대다수 조합원인 상황에서 학생 혹은 학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형이다. 문우에서는 대자보를 재부착하며 “대자보 작성 및 부착은 학내 구성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착된 대자보를 훼손하거나 수거하지 마십시오. 9월 이후 혹은 교섭 타결 시 직접 수거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문의를 남길 수 있는 문우 공식 메일 주소를 작성한 포스트잇을 덧붙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은 7일, 또다시 대자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자보는 왜 계속 떼어지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 집요하게 청소노동자의 목소리와 그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지우고자 하는 것일까?

또한 문우는 청소·경비노동자의 질문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총무처에 7월 18일 취재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답신이 없어 몇 차례 더 보내고, 전화로 답신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7월 30일이 되어서야 “현재 민주노총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인터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줄짜리의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학생회관 안 대자보

4. 나가며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에 돌입할 때도 청소·경비노동자는 매일 해오던 일과 투쟁을 병행한다. 우리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의 학교를 오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오가지 않는 시간에 학교에서 땀 흘리며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고, 문을 여닫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이 멈추면 학교도 멈춘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천막 농성으로 텅 비었던 본관에 어떻게 다시 교직원들이 출입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유례 본관 같은 데는 나무 재질이 많잖아요. 거기서 땀이 썩는 냄새까지 날

정도로 곰팡내가 이렇게 고약하게 나더라고요. (중략) 그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는데, 어우, 진짜 그래도 학교가 돈이 많은가 봐요. 청소업체 하루 딱 불러서 전부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직원들) 다 들어가더라고요. 곰팡이 제거, 냄새 제거 다 하는 그 돈 만만치 않아요.

황금순 하는 데도 돈 꽤 들어갔을 텐데, 몇백은 들어갔을 텐데.

문유례 그리고 또 우리가 접거해 놓으면 또 (교직원들은) 나왔다가. 또 몇백 들어 (곰팡이 제거) 또 하면 되지 뭐. 그러지 말고, 그런 거에 그렇게 성의 없이 돈 쓰지 말고 쿨하게 청소노동자들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으시오 하면, (식대) 주면 되잖아.

천막 농성이 시작되자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출입을 막은 본관은 역설적으로 가장 청소·경비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다. 공부하고, 웃고, 떠들고, 활동하는 학내의 모든 공간은 청소노동이 멈추면 낡고, 더러워지고, 곰팡이가 핀다. 청소·경비노동자의 노동은 학교에서 필수 불가결이며,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귀담아듣지 않는다. 하루의 일과에서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시간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치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건물을 말끔하게, 새것처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교다.

활동 시간과 반경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듯하지만, 학생과 청소·경비노동자는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은 이들의 노동에 빚지고 있다. 그렇기에 연세대학교에 공대위가 생겨났고, 꾸준히 노학연대가 이어져 왔다. 그 물결을 이어 문우편집위원회도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 움직임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천막 농성 중 마주친 학생에 대한 이류한승 조직부장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류한승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근데 우리 농성장에 그냥 같이 앉아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정말 같이 앉아서 책을 읽다가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오전 내내 있다가 갔어요. 그다음 날 또 오셨는데 그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천막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가서 막 역수 같은 비를 맞으며 천막을 바로잡고 있는데 이 학생이 막 뛰어와서 우산을 씌워주다가 마무리되고 갔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조용히 와서 같이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조합원들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위안이 되었죠.

연대라는 행위는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집회 현장을 찾아 온 학생들은 애써 목이 터질 듯이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뒷배”다. 그렇다면 곁에서 우산을 들고 바람에 쓰러지는 천막을 같이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그다음에는 노동하는 존재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의 곁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보자. 8월 안에는 식대 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용역업체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도급 계약 뒤에 숨어 있는 연세대학교가 임금협약 동시타결, 또는 8월 중 임금안 합의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꾸준히 지켜보자. 한 명 한 명이 모여 학교를 바꾸고, 청소·경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세상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록: 연세대학교 내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 역사

편집위원 비상

연세대학교 내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7년 특강을 들던 재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노동 실태조사를 하다 '살맛'을 조직했고, 이는 학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노학연대체인 연세대학교비정규노동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살맛'의 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인 연세대분회도 같은 연도에 결성되었다. 연세대분회와 공대위는 지금까지도 존속하며, 학교와 용역업체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⁷⁾

그 이후의 굵직한 사건들을 요약하자면, '코비 컴퍼니' 사태가 있겠다. 많은 대학교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학교와 노동자 사이 용역업체를 낀 간접고용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코비 컴퍼니'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백양누리와 경영관 등의 청소를 담당한 용역업체이다. 코비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정화조 청소를 시키거나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월차와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 이에 노조가 대응하자, 코비 측은 노동자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노동자들은 코비를 몰아내자는 목표하에 투쟁하게 되었다.

당시 문우편집위원회와 연희관 015B, 연세편집위원회와 YIRB 총 네 학내 언론단체는 '아직도 반복되는 청소·경비 노동자 문제와 코비 컴퍼니 사태의 해결에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언론모임'의 줄임말인 '아코디언'을 결성하여, 2019년부터 코비 컴퍼니 사태에 대한 릴레이 특별 기획 기사를 작성했다.⁸⁾ 아코디언은 이외에도 학교와 코비에 맞서 연서명을 받고 입장문을 내고 집회를 진행했다.

7) '살맛'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는 살맛의 학생들이었던 김세현, 오수빈, 용락이 쓴 『빛자루는 알고있다』 참고.

8) 당시 언론단체들이 작성한 릴레이 특별 기획기사는 아코디언 페이스북 페이지에 실려 있다.

또한 당시 총학생회 <Mate>가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을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 해당 약속은 이행되지 않아, 문우편집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이를 규탄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올라온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입장문 작성과 연서명 안건은 부결되었고, 공대위가 요청한 단체 소개 및 홍보 안건 상정 또한 제대로 다루지지 못했다.⁹⁾

그러다 마침내 2020년 12월, 코비 컴퍼니가 학교에서 퇴출되어 투쟁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사회와 학내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 만큼, 투쟁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2022년 3월, 연세대분회의 집회가 다시 시작되었다.¹⁰⁾ 투쟁의 요지는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적 임금의 삭감을 막기 위한 440원 임금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위한 원하청협의기구 설치 요구였다. 가파른 물가 인상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요구는 생존권과 노동권에 직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고소가 있는 지 두 달 후, 청소·경비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는 연대생들의 기자회견이 공대위의 주도하에 열렸으며, 청소·경비노동투쟁지지 연서명은 삼천 명을 넘겼다. 당시의 투쟁은 8월 26일 임금 인상안이 타결되며 종료되었으며, 다행히 고소 건도 2024년 2월 6일 청소노동자 측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9) 문우편집위원회. "2020 아코디언 기획기사"여전히 남아있는 책임 - 말 뿐인 '최선'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https://blog.naver.com/yonmunu/222147196137> 참고.

10) 연희관 015B. "보이지 않던 노동을 마주할 때." <https://brunch.co.kr/@yonsei015b/15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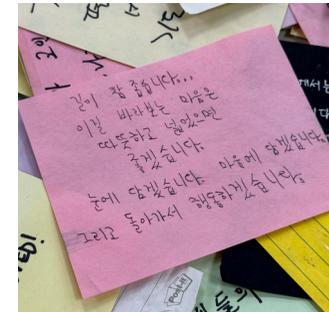
활동정리

“길이 참 좁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마음은 따뜻하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참 좁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마음은 따뜻하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 어푸



이번 학기 문우편집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와 애도’를 주제로 메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직간접적으로 지나온 참사를 되돌아보며 참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를 고민하고, 참사 이후에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중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자리에 이태원이 있습니다. 문우 내부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감각은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고전 뒤풀이로 안암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에 부모님의 전화를 받은 순간의 혼란,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던 참사 현장의 사진과 영상, 이태원 방향으로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사이렌 소리. 이후로 한참을 이태원역에서 만나자고 하기 어려웠던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저마다의 형태로 미안함, 불안함, 일상적인 무기력을 남긴 이 참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편집위원들은 주변 사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고’ 또는 ‘사망자’ 같은 단어를 마주하고 몸이 움츠러들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참사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사고’가 아닌 ‘참사’라고, ‘사망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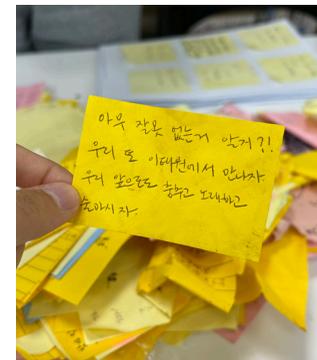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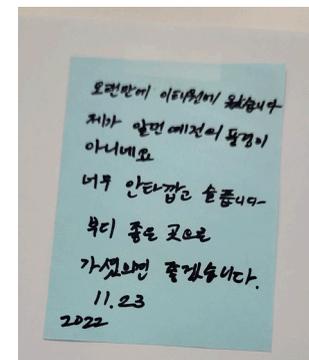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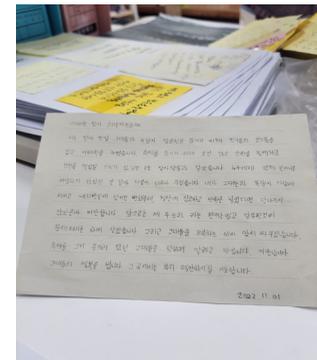
10·29 참사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던 중 문화연대에서 ‘찾아가는 이태원 기억 담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 담기’는 시민들이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생긴 분향소를 찾아와 포스트잇으로 참사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고 편지를 띄운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벽에서 떨어진 포스트잇이 거리에 휘날”리는 것을 보고 “애도하는 마음’이 이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여긴 이들이 떨어진 포스트잇을 모”¹⁾는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포스트잇을 수거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3년 3월부터 매월 주말 정기적으로 진행된 기억 담기 자원 활동의 연장으로, 2024년 3월에 들어 문화연대 외부에 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 위해 ‘찾아가는 이태원 기억 담기’ 활동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렇게 5월 16일, 연희관의 자치도서관에서 문화연대의 활동가 이현, 인권운동공간 활의 활동가 기선의 진행으로 문우에서도 기억 담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크게 10·29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고 이태원역에 붙은 추모 메시지를 보존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분 남짓의 다큐멘터리 <결 프로젝트: With you 1029>에는 참사 생존자, 희생자의 유족과 친구, 예술가 등이 등장해 시민들이 이태원역에 붙인 포스트잇의 글귀를 낭독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활동가분들이 이태원역에서 수거한 포스트잇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활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스키치테이프가 붙어 있고, 먼지와 오염물이 묻어 있고, 빗물에 젖고 길에서 밟혀 구겨

1) 김세훈, 정효진. “미안함은 시민들만의 몫이어야 할까” 슬픔을 기록하는 사람들.” 경향신문, 2023. 11.01.,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11346011#c2b>. (2024.08.13 접속).

진, 곰팡이가 슬거나 잉크가 바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포스트잇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펴서 A4 용지 위에 정리해 붙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생자에게 말을 거는 편지뿐만 아니라, 기도문과 그림 등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애도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가량 아카이빙 작업을 한 뒤에는, 저마다 인상 깊었던 추모 메시지를 골라 직접 낭독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메시지와 소감을 활동 보고에 남겨 봅니다.



‘미안함’을 담은 메시지만큼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에 대한 추모가 많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단원과 희생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인 희생자’로 불린 것과 연결해, 어떤 집단이 애도의 과정에 더 크게 두드러지고 어떤 집단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애도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이태원에 왔습니다”로 시작하는 추모 메시지를 끝은 한 편집위원은 만약 자신이 애정을 가진 공간에서 참사가 일어난다면 그곳을 다시 방문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로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정동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발화하기 어려운 이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기억 담기 활동뿐만 아니라 메인 세미나 과정에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거 알지?! 우리 또 이태원에서 만나자. 우리 앞으로도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자”라는 메시지를 낭독하면서는 무결한 피해자라는 이미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회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다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실 수 있는, 축제의 장소, 다양성과 즐거움의 장소라는 색을 되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우 69호 독자모임

정리정돈 튜브

0. 자기소개

- 튜브** 저는 69호 독자 모임의 정리를 맡게 된 튜브고요, 현재 문우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 유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호에 유연이라고 실렸고, 이 글을 쓰느라 엄청나게 고생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문우 편집장을 맡고 있어요.
- 데어** 저는 원래 다른 글을 쓰다가 던지고 ‘쓰레기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데어라고 불러주세요.
- 비상** 저는 69호에서 필명이 비상이라고 되어있고요. 69호에 제가 참여한 글이 꽤 있어서 멀리 있지만 비대면으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찌부찌** 안녕하세요. 저는 문우 필명이 찌부찌였고요. 제가 찌부찌라고 소개할 수 있는 공간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 모** 저는 모라고 하고요. 저는 문우에 글을 쓴 적도 없고, 문우 소속이었던 적도 없고, 심지어 이 학교 소속도 아니지만 찌부찌랑 친분이 있어서 문우를 계속 읽고 독자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어요. 그 뒤로 한참을 못 읽고 있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참 기분이 미묘하네요. 돌고 돌아서 대면 모임을 하게 되다니.

비(飛) 저는 비(飛)라고 하고요. 단(丹)의 친구로 왔고 문우나 해당 학교에는 완벽한 타인이예요. 그런데 오늘 친구 덕으로 이렇게 재밌는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단(丹) 저는 단(丹)이고요. 69호는 카드뉴스 만들면서 잠깐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완전한 독자 입장에서 참여를 해 보고자 왔습니다. 저희 문우 가족이 얼마나 글을 고생하면서 썼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수고 많았다고 칭찬 날려 주려고 꺼냈습니다.

도토리 저는 올해 초 들어온 문우 수습 편집위원 도토리입니다. 69호 독자모임이 실리게 될 70호에는 도토리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게 될 것 같아요.

포슬 안녕하세요. 저는 포슬이고, 저도 예전에 문우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1. 내지 구성

비상 ‘울렁이는 지구 위에서’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느낌을 최대한 담으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어찌고 저찌고 지구 위에서’라는 틀을 찢단 말이에요.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여야 하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울렁이는’이 선정됐죠. 싫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당시에 ‘우리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목 자체, ‘울렁인다’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읽히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정적으로도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울렁이는’으로 정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뜻이 잘 담긴 것 같고 구현이 잘된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호 제목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모 저는 처음 봤을 때 사실 ‘울렁이는’이 그렇게 잘 쓰이지 않는 말이고 낯선 조어라서 표지만 봤을 때는 의미가 확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편집장 서문에서 왜

이런 단어를 썼고, 어떤 의미인지 다 설명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라도 결이 잘 맞는 제목이라고 느꼈어요.

비(飛) ‘표지 디자인이 정말 내 취향이다’라고 느꼈어요. 유화 느낌이나 잉크 번지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또 이런 볼드체가 표지에 적혀 있는 걸 좋아해서 디자인 정말 ‘이쁘게’ 뽑혔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속해 있는 동아리는 없는데, 각종 교지 편집위원회나 동아리에서 회지를 내면 그걸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회지를 내는 과정에 몇 달의 시간이 걸렸고, 몇 번의 수정이 있었겠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몇 달 동안 고생해서 만든 걸 구경할 수 있다는 게 재밌었고요. 제목이 ‘울렁이는 지구 위에서’인데 이게 편집장 서문에 흰색 바탕 글씨체로 네모 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회전의 기준이 되는 자전축마저 움직이는 지구 위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와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맬니다’라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각자 지구에서 어떤 자세로 있든 간에, 땅바닥에 붙어 있든 공중에 떠 있든 그냥 지구 자기장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찌부찌 ‘울렁이는’이라는 말에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주지 않고 싶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올린 건 멀미였거든요. 이 지구가 그냥 보기에는 하나도 안 울렁거리고 평평해서 여기서 느끼는 미묘하고 이상한 지점이나 메스꺼움 같은 기분 나쁨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구가 울렁이고 있다’라고 전제함으로써 ‘이곳은 내가 멀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나는 여기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을 받아서 제목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2. 권두시 / 유연

비상 이번 호에 되게 다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권두시가 모든 글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라서 걱정했었어요. 유연의 능력을 걱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파심이 있었는데, 막상 나온 걸 보니까 ‘잘 썼는데?’ 싶어서 기분이 좋았던

생각이 나요. 지금의 권두시가 이번 호에 전체적으로 잘 붙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찌부찌 저는 글들이 '그래, 나 이렇다 어쩔래?' 이런 느낌으로 읽혔거든요.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애매하다'라는 톤으로 읽혔는데 이 지점이 권두시에서 똑같이 드러나서 좋았어요. 내가 지금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걸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라 이게 내 건데 어쩔래?'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테어 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연에 유연이 와르르 뱉어내는 그 단어들 좋아요. 저는 원래 시에서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유연 보통 권두시는 피드백을 안 받고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서 편집 회의 독스에다 올렸는데 피드백으로 아마 비상이 '진짜 미안한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라고 달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 시는 그냥 읽으시길'이라고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비상 지금 돌아켜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를 읽다 보면 '이거 뭐 말이고?' 이러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권두시랑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무슨 말이지?' 싶은 걸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3. 편집장 서문 / 비상

단(丹) 저는 비상의 편집장 서문을 읽을 때마다 비상이 문우의 글 하나하나, 그리고 글 쓴 사람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아끼고 좋게 본다는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편집장이 이 호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는지, 그리고 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우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소중한대'고 여기는 게 느껴졌어요. 이 글을 보면서 비상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유연 저도 비상의 책임감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때 편집위원의 수가 너무 적고 마감도 계속 밀렸는데, 비상이 단체 채팅방에서 무한히 '여러분, 이때까지 하셔야 해요.' 하면서 재촉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이 호가 유독 더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편집위원들끼리 다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업무 재촉을 한다는 것이 충분히 부담될 수 있는데, 어떻게든 해내서 이 호를 출간했다는 것이 저에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찌부찌 다른 분의 말에 다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당신의 울렁임이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기를 바라며'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울렁임이라는 건 자기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제가 멀미를 해도 제 옆 사람이 멀미를 안 하면, 제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왜 나만 멀미하지? 왜 나만 울렁거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상처 입히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쪽으로 가게끔 한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비상 사실 누군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제일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전 호들을 보면 편집장들이 다들 마지막 코멘트를 달더라고요. 다들 간지 나게 썼길래, 나도 간지 나게 써야 한다고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물인데 누군가 그렇게 읽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포슬 잡지나 논문집 같은 것을 읽을 때, 이 기획이 어떤 바탕에서 나오게 됐는지 항상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왜 이 주제를 정했고,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런 글이 됐는지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편집장 서문에서 세미나를 소개해 주고, 어떤 고민 위에서 이렇게 다양한 글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줘서 좋았어요. 제가 썼던 편집장 서문은 나온 글을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였고, 글을 쓰는 전체 기획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상의 편집장 서문에서 그런 사항을 볼 수 있어서, 독자로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4. [메인기획]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페미니스트요? / 유연

비(飛) 저는 이 글에 첨부된 트위터 캡처 글을 보고 매우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트위터라는 SNS를 예시로 들었을 때, '좋아요'를 눌렀던 트윗들이 몇 분 지나고 보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싸우는 글이었던 적이 꽤 많아요. 누군가의 트윗을 보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마음을 누르고 피드를 내려요. 그러다 다른 누군가의 트윗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공감하거나 지지하는 의미로 또 마음을 눌러요. 잠시 뒤에 타임라인에 그 글들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글 하나씩만 봤을 때는 둘이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글 하나에서만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였죠. 그래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다들 이렇구나' 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 우리가 페미니즘의 발전 역사를 이야기하면, 보통 제1 물결, 제2 물결과 같은 식으로 미국이나 서양 중심으로 정리된 페미니즘의 역사를 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연도 글 쓰면서 한국의 페미니즘 역사를 정리한다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걸로 알아요. 저도 이게 궁금했던 주제였거든요.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 시대까지 페미니즘이 변화해 왔고, 양상이 바뀌어 왔는지가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조사해서 잘 녹여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잘 정리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 글이 되게 좋았어요. 정말 품이 많이 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삼 '품이 많이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글이었습니니다.

모 저도 비상이 말한 것처럼 읽으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복잡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인데, 읽으면 거의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놓은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쓰는 건 쉬운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쓰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연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싶었고, 저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글이 되게 좋았어요. 거기에 줄을 쳐놨었는데... "반드시 '어떤 페미니스트' 되기를 선택하지 않

는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덜 공부해서, 덜 활동해서 아직 확고하게 자신을 특정 이름으로 정의 내리지 못했다는 불안감 없어요"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한창 하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걸 약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지금은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상태인데, 한창 그런 고민을 할 때 읽었으면 되게 힘이 많이 됐을 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한 5년 전쯤, 이 글을 읽었으면 제가 고민을 덜 하진 않았겠지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고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포슬 제가 문우에서 '시선의 좌표'에 글을 실었을 때, 『장애학의 도전』을 한 학기 내내 읽었는데 장애로 글을 쓰라는 선배들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연세지인지 015B의 호를 보고 인터뷰 기사도 접하면서, 이론적인 내용, 재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터뷰를 쓰고 싶다', '우리 학교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장애인권위원회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인터뷰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한 학기 동안 장애학 공부를 하면서 장애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 이해와 지금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 세상에 맞닥뜨렸을 때 잘 안 붙는 것 같았고, 내가 믿는 것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찾아지는 상황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1 물결, 2 물결, 3 물결이 서구에서 정리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물결이 계속 중산층 백인 여성 중심이었잖아요. 추후 그것들이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점점 많은 피부색과 좀 더 많은 계급, 여러 국가의 여성이 들어오면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유연이 이번 글에서 정리한 것도 계속해서 '이 사람도 여자이고, 이 사람도 여자이고, 이 사람도 여자인데.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 거지? 페미니즘 운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지?'라는 맥락에서 변화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유연의 결론에서 자신을 확고하게 특정 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활동판에 깊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판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빈곤 의제 아래 모였다고 해도 가만히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동상이몽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동의하니 까 일단 가는 거죠. 각자의 맥락과 어떠한 것이 너무나 다른데, 어쨌든 하나의 믿는 방향이 비슷하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활동판이라는 것도 그렇게 서로 섞이고, 엄청나게 서로 다르고, 그 사이에서 또 막 잡음이 있는 곳일 텐데, 활동을 더 했는지 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권축제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인상적이었던 말이 “서로 어떤 공동체든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을 서로 나누고 섞이고 서로 오염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거든요. 저도 유연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히려 너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오염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연이 주장하는 건 섞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두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해서요.

데어 유연이 이 글을 쓰려고 엄청 두꺼운 책을 동방으로 계속 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옆에서 봤는데 보면서 ‘절대 못 읽겠다. 『페미니즘과 지리학』이 대체 뭐야?’ 싶었거든요. 편집위원이 완전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공부한 것을 번역해서 다시 재전달하는 것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유연의 목표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목표에 되게 잘 맞게 썼다고 생각했어요.

찌부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나 구성에서 유연의 의식의 흐름이 보여서 좋았어요. 고민의 흐름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 트위터 같은 것을 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용은 이거였어. 그랬는데 그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역시 정답이 없다.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게 난데. 어쩔래’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솔직해 보여서 좋았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났는데, 한창 페미니즘 의제가 막 떠오를 때쯤이어서, 저도 다들 페미니즘 좋다 하니까 ‘나도 좋아, 해 보자!’ 하고 일단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어떤 쪽인데?”라고 얘기를 하면 답을 못 했고, 내가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못하는 게 ‘공부를 덜 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강좌를 막 들으려 다녔어요. 결국 이 글에서 유연이 공부한 과정이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강좌 할 때 난 분명히 돈도 내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사람들이 싸울 때마다 거기서 ‘어쩌면 좋아, 싸우지 마세요’ 이런 역할만 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나의 존재,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래도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건설적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연이 글에서 보여주는 의식의 흐름이 유연만 갖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페미니즘이라는 걸 접해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공부와 고민의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메인기획]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의 파도 아래 / 이해

비(飛) 저는 되게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근 몇 년 새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위험 추구가 낮고, 일정 값 이상의 성공이 보장되는 장르가 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1~2년 동안 짧고 굵게 유행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한 7~8년을 훌쩍 넘겼잖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연애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구요. 벌써 2개의 프로그램을 봤어요.

유연 뭘 봤나요?

비(飛) 올해 3월에 <연애 남매>라고 하는 JTBC랑 웨이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6월 중장 후에는 SBS에서 방영한 <신들린 연애>를 봤어요. 반년간 내리 예능 프로그램을 감상했는데요.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가 틀어주는 대로 오마카세(?)를 받았는데, 같이 연애 프로그램 1화를 시청하니깐 2화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는 연애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만, 그 행위를 직접 이행하는 것에 있어 많은 귀찮음과 무기력을 느껴서 연애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내 사람이 라고 하는 범주 내의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연인 관계

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범주 내의 사람과 보통 연인 간에 진행되는 정서적 교감이나 발달 정도를 습득하기 때문에, 연애하지 않아도 충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범주에 들이지 판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첫 번째로 인격, 성품이면서 안광을 보곤 하거든요.

유연 다들 눈을 피하기 시작해!

비(飛)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연애 대상이 적고, 설령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더라도 좋은 사람, 연애하면 괜찮을 것 같은 사람에서 생각이 끝나고 더 발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기준이 복잡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다 보니까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 만족을 하면 쉽게 연애 욕구가 해소돼요. 만약 총 16부작인데 8편까지 보면 전반적인 틀이 보이고, 그러면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채울 만큼 즐거운 감정을 다 채우고 그만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연애하는 거 기승전결에서 전까지 다 구경했는데, 할 만큼 했네 싶어요. 영화나 드라마 등장인물 보듯이 몇 시간 안에 끝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거든요. 너무 큰 감정을 쏟지 말고 즐거움만 얻어가자고 생각해서 대리만족했어요.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연애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형식이 인간 관찰처럼 되고, 인터뷰도 하나 하나 인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휴먼 다큐멘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찰자의 시선에서 몇십 명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특정 기간에 무의식중에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몇 주간 이어진 행동이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행해졌으며, 어떤 결과를 탄생시켰는지 구경할 수 있었어요. 어떤 심리상태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났는지, 그 상태에서 어떤 선택지가 나타나는지도 볼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유연 연애 프로 보시는 게 맞죠?

비(飛) '인간 본성은 이렇구나~ 휴먼 다큐~ 인간은 이렇구나~' 하면서 인간을 알아봤고,

'연애 심리 충족해서 도파민도 채워졌네. 나는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참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글이었어요.

포슬 저는 다시 읽으면서 느끼 게 '진중한 연애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글의 말미에도 어떤 진중한 연애를 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데, 진중한 연애라는 것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규칙들과 규범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더 재미있는 기획이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진 않지만,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방송의 일부만 보여주는 클립에서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댓글에서 '저 남자 너무 방어적이다' 아니면 '저 남자 너무 여우 짓 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대요.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방어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행동이 왜 나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계속 평가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의 평가가 결국 연애하는 데 있어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것인지 등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혜님이 글을 조금 더 구체화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글에서 던진 어떤 연애상과 연애 세태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는 연애의 모습들, 연애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재밌는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丹) 저는 제 입장과 비교를 해가면서 연애 프로그램을 봤는데,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나 제 주변이 어떤 사람하고 연애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해 부담을 덜 가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봐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무척 신중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다시 안 볼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바꾼다거나, 연락처를 차단하는 등의 수단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가볍게 접근한다고 생각해요. 마트에서 상품을 사려다가 '뭔가 이거 별로인 것 같아. 나 그냥 이거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선택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항상 누군가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프로그램 밖 실제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접근하는 거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택했을 때, 제삼자가 중계를 해주는 것도 현실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애 관계에 대한 어떠한 명확성을 얻고 싶어 하고, 누군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과정의 어떤 단 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장바구니에서 빼기 버튼 누르는 것처럼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연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흥행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유연 저는 이 글 피드백에도 참여했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리얼리티가 뭐지?'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이미 이 장르 자체가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얼리티, 리얼리즘이라는 거에 대해 궁금하게 되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리얼리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글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 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 이 글 기획 자체가 그동안 문우에서 얘기했던 주제랑 좀 다르잖아요. 문우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글이라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편도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꽤려보고 있는 편에 가까워요. 저희 동생이랑 만 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저거 이성애 정상성 프로파간다라고 보긴 하는 데... 제가 그걸 안 좋아해서 더 잘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 걸 빼놓고 봐도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만은 않다고 느꼈거든요. 연애 프로그램을 주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고,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연애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연애를 추구해야 하는가에서 되게 급하게 끝맺은 느낌이 나서 아쉬웠어요.

튜브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조금 보거든요. 대부분 10일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16 부작으로 늘려서 방영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긴 시간 동안 그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 사람에 대한 호감을 정리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연애를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연애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 연애 프로그램이 가진

어떤 문제점을 짚어주긴 해서 재밌게 보았고,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 각심을 줄 만한 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6. [메인기획] 여기, 그대로, 애매하게 / 비상

비상 제가 1학년 1학기부터 문우에 계속 있었는데 필명을 매 호마다 바꿨어요. 이 호 에서 비상이라고 한 이유는 살짝 제 글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비상하고 싶지만, 날아오르고 싶지만 내 상황은 비상이다. 그런 의미로 비상이라고 썼습니다. 나 는 비상하고 싶지만 난 즐라 비상사태다. 제가 이때 그냥 개 힘든 상황이어서 '이 글을 토해내고 말아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쓴 글입니다.

포슬 저 이 글 진짜 좋아해요. 이 글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트위터(X)에서 무슨 3만 원 내고 키배 배우기 그런 글이 돌았었어요.

유연 트위터에서 좀 유명하신 것 같은 분이 여성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 배 뜨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가 가능하고, 3만 원 내면 자기가 키배 뜨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한 트윗이 있었어요.

포슬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사실 비상이 사회화가 된 과정, 귀어로서 사회화가 된 과정도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였고 유연이 글을 시작하는 어떤 증거로 삼고 있는 것도 트위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젠더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젠더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뭐가 '젠더론'인 거지? 젠더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나는 특정한 입장 이 있는데 나의 반대편 입장을 이론화하는 게 젠더론인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입장을 '젠더론 안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입장을 어떤 이론이나 정체성으로 설명하는 것도 큰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일이잖아요? '인권 담론에 대한 언어에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위터(X)에서는 그냥 140자 안에 이렇게 다 설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

고 그 트윗 하나로, 그 사람의 삶 맥락을 짚 때 놓은 상태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탁 해 놓으면 그게 바로 나의 입장이 돼버리고. 모두가 같은 삶의 조건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비상의 어떤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이 자기 삶의 맥락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고민, 힘듦, 정신병,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 설명해주는 이 글이 좀 더 비상이라는 사람을, 비상이 갖고 있는 입장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게 꼭 유연의 말처럼 '난 교차성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훨씬 더 저는 비상의 입장을 이해하기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상이라는 사람을 좀 더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비상의 글을 정말 좋아해요.

유연 저는 이 글이 제 기획이랑 같은 호에 실려서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 페미니스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 맞을까? 약간 이런 글이었다면, 이걸 읽고 나서 비상 글을 읽었을 때 맨 처음에 “비상은 사실 페미니즘 그런 거 잘 몰랐다. 대중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나한테 저렇게 시비를 터는 거 보니까 일단 대다수가 개새끼 같다”라고 시작을 하는 전개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페미니즘 그런 거 이제는 중학교 때보다 더 알게 되었다”라고 넘어가는 흐름이 정말 좋아서, 제 기획이랑 같이 실린 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여기 실렸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저도 포슬이 얘기한 것처럼 비상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은 지침서가 생긴 것 같아서 좋고요. 사실 저는 글에 적힌 내용을 이미 많이 알고 있기는 했지만, 본인의 입으로 언어화한 글을 읽는 건 또 다르잖아요. 비상은 자기 공개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글을 어쨌든 내가 여기에 신기로 했다는 것이 비상이 문우에 대해서 가진 애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데어 저 소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비상이 이 글을 뭔가 애매한, 그 상황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자기 긍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제목에서 보여서 좋았어요.

모 저는 처음에 -4, -3이 아니라 4, 3, 2, 1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영점으로’라고 돼 있는 걸 딱 보고 어? 해서 앞에 돌아가서 다시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영점으로 왔다가 다시 1, 2, 3으로 가는 그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찌부찌 비상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지금의 비상이 있기 위한... 뭔가 거친 리추얼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거를 내가 언제 한 번 정리하지 않으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난 여기서 모든 걸 풀고 가겠다, 이런 각오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2에서 그 문우에 들어간 이유가 너무 현실적이고 와닿고 공감돼서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에 “다들 똑똑해 보여서 나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너무너무 저랑 똑같아서.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우에 들어갔고 거기서 어떤 거를 느껴서 지금의 비상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호 제목이 ‘울렁이는 지구 위에서’라고 했잖아요. 이 글이 진짜 울렁거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글 자체가 전체적으로 ‘웁, 나 멀리 나! 나 지금 엄청 멀미하고 있어 애들아, 그러니까 지금 울렁이는 나를 보라.’ (일동 웃음) 정말로 울렁이는 글을 썼고 이 울렁이는 세상에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울렁이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서 정말 좋았어요.

비상 시간의 흐름과 과거, 현재, 미래를 소제목으로 표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음수, 0, 양수로 표현하게 된 거란 말이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괜찮은 소제목인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시간의 흐름도 잘 읽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1, 2, 3 숫자를 무한히 세 보자.” 이 파트에서 제가 의도한 대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거나 희망을 얻는다거나 내가 이래도 괜찮다거나 하는 감상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찌부찌 제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글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유연 이 호의 약간 정체성 같은 느낌이 있죠. 그냥 이 글이 문우에 실렸다는 것도 너무 좋고 비상이랑 같이 대학생생활을 해오면서 변화하는 비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지켜보는 과정과 이 글에 나온 비상의 느낌이나 생각이 맞물리는 게 있어서 이 글을 정말 좋아했어요.

7. [문우의 눈] <비행일지> 속 페스포트를 기록하다 / 어쭈

비상 이 글이 일단 문우에 실렸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 문우 동방 책장에 다른 학교 교지들을 정리해 놓았던 말이에요. 다른 학교 단체나 교지 소식도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는 편이고,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해서 활동한다거나 자주 얘기를 하는 편인데, 소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중에 페스포트가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페스포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표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페스포트가 없어진다.' 이 정도뿐이었으니까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서, '말이 힘드셨던 건가?' 아니면 '우리 대학이 이렇게까지 멸망해 가는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소식만으로도 여러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카이빙 작업을 문우에서 해서 비화 같은 걸 알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페스포트가 없어진 이유 자체가 아주 암담하다거나, 외압이 심해졌다기보다는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해산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간 거잖아요. 연세대학교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시간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판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것 같았어요. 문우도 그렇고, 다른 교내 단체들도 다 같이 '여러 가지' 도모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인터뷰였어요.

이번 여름호가 나오면 코로나 시기 전에 했던 업무를 되살려서 교지를 다른 학교에 좀 보내보려고 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교지를 발송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침체돼서 교지나 단체들이 코로나 때 운영하기 힘들기도 했고, 없어진 곳

도 많고, 근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웠어요. '없어졌다'라고 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소식도 뚝 끊기고 지금 뭐 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단체들도 너무 많고, 온라인으로 아카이빙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단체도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흔적이 남아 있겠지만 우리에게서 유실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겨울호에 이런 기획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페스포트가 이렇게 전시회를 열고 해산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이 글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도 그렇고 다른 단체가 이런 글을 보고 동력을 얻곤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상입니다.

데어 제 이야기는 비상이랑은 좀 다른 방향인데, 페스포트를 끝내면서 인터뷰하신분의 의도와도 저는 좀 다르게 느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연세지를 했었는데, 연세지에 들어가기 전에 연세지에서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부리>가 해체될 당시 연대 대자보를 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리를 단다, 단으려고 마지막 전시회를 한다. 거기에 연세지 와주면 좋겠다'라고 초대를 받아서, 오프닝 이벤트 이런 걸 갔었어요. 갔는데 한쪽 벽에 연대 대자보를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약간 화가 나는 거야. 약간 뭐라고 해야 하지, 나의 장례식에서 웃어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강박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단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남겨야겠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겨서.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들 되게 훌거운 감정이구나, '우리 잘 단았다', '정말 대단했다' 같은 감정이었는데. 나는 단는다는 게 너무 슬프고,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 그런 게 생겨서. 의도와는 다소 다른 동력을 얻고 갑니다.

모 단는 단체가 하나 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랑 밖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7년, 18년도부터 있던 일을 쪽 아카이빙 해 놓은 인터뷰 기사잖아요. 저는 딱 이 시기에 대학생생활을 시작하고 제 주변 친구들이 총여 폐지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학교에서 연대 대자보 쓰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되게 잘 기

억하고 있지만 제 안에서 언어화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47쪽에 보면 “총여 폐지 담론 진행되는 와중에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총여가 없어진 상태에서 학교의 여론이 이렇다고 빼기가 박혀버린 거죠”가 딱 그 18년도 그쯤을 설명하는 제일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연대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연대 총여 폐지가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대학가 전체의 여성주의 그런 쪽 단체의 활동이 확 수그러들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언어화를 못 하고 있다가, 제 언어를 대신 꺼내준 느낌이거든요. 이런 게 아카이빙이 된다는 게 참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형태로 아카이빙이 돼서 참 씁쓸합니다.

유연 제가 이 글의 언협 보도상 추천사를 썼거든요. 쓰면서 ‘나는 이 기사가 우리 동아리 이번 호에서 잘 쓴 기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도상 후보로) 오를 거다’ 하면서 열심히 추천사를 썼어요. 그걸 읽어드리자면 “사라진 동아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동아리에 머물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함께했는지, 어떤 논의 끝에 동아리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해 본 적은요? 연세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페스포트는 문을 닫으며 그간의 발자취를 정리해 전시 <비행일지>를 열었습니다. 문우편집위원회가 전시를 취재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고, 편집위원 어푸가 이를 정리하여 기사로 남겼습니다. 어푸의 기사에서는 페스포트의 경험과 고민이 그 끝과 함께 사라져 버리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리하여 계속 연세대학교를 다니며 페미니즘 감수성을 공유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끔 기록하고자 한 결과입니다. 어푸는 동아리의 재생산 문제,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로서 마주한 어려움 등 무거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묵직한 인터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럴 수 있는 까닭은 그 또한 페스포트의 구성원들과 같이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동료 학우이자 페스포트와 마찬가지로 대학 동아리인 문우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행일지> 속 페스포트를 기록하다’는 대학 언론으로서 쓸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기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라고 제가 추천사를 썼거든요. 어푸가 같은 대학 구성원이기에, 인터뷰 대상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일들을 같이 겪은 사람으로서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문우에서 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푸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이 다 최소 18학번이었는데 저는 학번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미 총여 폐지도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우충필도 없고 그냥 전설로만 듣는 이야기 느낌이었어요.

글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동아리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나는 그냥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였다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시회 축사를 해준 친구가 동아리라는 건 원래 필요하면 생기는 거고 그때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다, 당시 동아리가 필요했던 사람끼리 서로 잘 지냈으면 충분히 괜찮은 거다, 라고 축사를 해줬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와닿았어요. 총여에 관한 내용보다는 이게 더 와닿아서 충전되는 인터뷰였어요. 인터뷰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책임지기 힘들면 그냥 동아리를 닫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힘들면 닫자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편집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의미가 깊은 인터뷰였고 그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비상

저는 총여 당시 단체들이 다 같이 연대 성명도 내고 총여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가면서 했던 선배들이 학교에, 동아리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직접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는 학번이었어요. 그래서 문우에 들어오자마자 선배들이 이 사건에 대해 엄청 소상히 설명해 주는 세미나 같은 걸 들었거든요. 총여 사건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고 이후 어떤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지.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 시위도 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이어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는 이미 총여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된 상황이었고 여기 글에서 말한 것처럼 단체들이 결집할 구심점이 없어진 상태였어서... 내가 겪어보지 않은 생활이지만 총여가 남아있었다면 우리의 대학생활이 지금과 다를 수 있었겠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입학했을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획을 보면서 제가 입학할 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뎌 이랬는지. 우리가 이거를 이어 나갈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 구심점이 되는 단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가 탈권화된 이 시점에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찌부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우울해졌어요. 제가 18학번이거든요. 제가 문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총여 주관 인권 축제에서 축제 진행을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우총필 대자보를 썼어요. 그때 진짜 너무 괴로웠고, 이 총여가 없어지고 백래시를 맞닥뜨린 2018년, 이게 진짜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 이 교내 친총여 동아리 모임 및 기구 명단 공개를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진짜 무서운 시대였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 하고, 저랑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존립이 위협해지는 시기였고... 총여 재선을 했는데도 투표로 떨어지고 하필이면 그 총여 폐지 투표가 연세대학교 이래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온라인 투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율이 진짜 미친 듯이 치솟고... 저희는 이미 뾰힌 총여를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같고, 총여실에 모여서 얘기 나누기도 했었고, 코로나 시기에는 총여실 지켜야 한다고 자물쇠 따고 들어가서 농성하기도 하고, 그 쪽에서 막 이상한 영상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걸 보면서 스스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두려운 시기였어요. 언제라도 내가 학교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만 같고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두려운 시기를 다시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 글이 마음에 들었어요.

둘째로 45쪽에서 어푸님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소진될 일이었나 하면 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소진됐어요. 그땐 모두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문우도 그 여파를 되게 크게 맞았었고 와중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래서 부원 5명이 글 쓴 적도 있었어요. 3명이 회의를 하고 5명이 문우를 내고. 그냥 버텨야만 되는 시간이 있어서 문우도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야 새 부원을 모으고, 새 담론을 만들 수 있을까. 모두가 지쳐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을 낼까. 다 힘이 없는데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페스포트에서도 당연히 했을 거고, 그때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론으로 지금 이렇게 닫는 것까지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문우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서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상 굉장히 절박하게 이 학교의 운동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찌부찌 맞아요. 이 총여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글을 쓰고. 그래서 그런지 이 백래시가 일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그런 학내 활동이 줄어들고, 이런 역사를 함께 했었고, 거기에 대한 서술이 짝 적혀있으니까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랑 당연히 함께했었고 또 함께 계속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단체가 없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걸 느끼며 오랜 친구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시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트라우마틱한 이야기를 해 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모 바로 전에 있는 비상 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의 의미로 쓰인 글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데이 학교 내에 문우를 포함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유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는 편집장이라 문우의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안녕을 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여력이 없으면 없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페스포트가 달기로 한 것도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유언이 인용했던, ‘동아리는 필요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말에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필요나 목적은 개인이랑은 좀 별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알지만, 사람이 없어도 단체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스포트를 보면서.

찌부찌 저는 제 대학생활을 문우에 묻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문우가 물론 학기 말에 좀 고통스럽다는 단점은 있지만 학기 중에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고, 서로 돌봄을 받는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우에 계속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기 말에 무한히 마감해야 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문우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문우라는 공간을 좀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한 번 글을 안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소진돼서, 우리 쓰지 말자, 라고 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글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지 편집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 동아리의 기초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이 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문우를 여전히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따뜻한 곳으로 꼭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상 제가 찌부찌와 같이 지냈던 선배들과도 알았던 사이고 제 밑에 유연이나 뒤에 더 들어온 사람 사이에 있는 입장에서, 위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체제는 그대로 있는데 구성원이 계속 바뀌잖아요. 구성원이 바뀌다 보니 체제를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편집장을 할 때 정말 많이 느낀 건데 우리 단체가 목적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학내나 학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쓰는 단체고, 그에 걸맞게 교지 발행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우리가 지향하고자 했던, 소위 '좋은, 안전한, 행복한,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장 할 때 체제를 바꿔야 할 것 같다. 바꾸지 않으면 동아리를 이어 나가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던 것 같고 그런 것을 요새 문우가 착착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느껴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이 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서 이 글이 정말 고마워요.

8. [문우의 눈] 쓰레기를 찾습니다 / 데어

데어 데어는 영어에 'Truth or Dare' 할 때 그 'Dare'입니다. 저는 연세지 있을 때부터 데어라는 필명을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 탐험대로 넘어가자면, 학내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 보자는 취지로

학내 4개 단체가 모이게 됐어요. 코로나 시기 이후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되게 대중화됐잖아요. 코로나 때 학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줬던 건데 한 번 허용된 거를 되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으니. 명목상으로는 금지되었는데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코로나 시기 이전보다 노동자분의 업무량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걸을 연세대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문제로 삼았어요. 이거를 분회에서만 해결할 일은 아니다, 학내 학생들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학내 자치 언론 <연세>, <문우>, <연희관 015B> 3개 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 4개가 모여서 팀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쓰레기 탐험대(쓰탐)'인데 처음에는 간담회를 주최해서 문제의식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를 한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을 등록해서 학내 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 그걸 조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떤 방식을 통해 학내에서 처리되고, 그것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어떻게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이 글은 캠페인의 일환인 공동 연재의 첫 번째 글입니다.

비상 이게 연재 글이잖아요. 뒤에 다른 단체들의 글도 이어지는 건데 저는 그 점이 진짜 좋았어요. 쓰레기 탐험대같이 우리가 다른 학내 단체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앞에 페이스북 글도 그렇지만 이 글도 다 같이 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아요.

튜브 이 글 읽으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작년 총학 후보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가 쓰레기통 수를 늘리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정책 토론회에 갔었는데 쓰레기통을 늘리면 청소노동자의 일거리가 늘어나는데 고려는 했다, 청소노동자분과 얘기가 된 사항이나를 물어봤었어요. 총학이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사람들이 버릴 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수를 늘리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좋았어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쓰레기 문제를 짚어준 것 같아서.

유연 '사람들이 잘 버리면 지저분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쓰레기통을 늘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청소노동자의 일이 두 배로 되는 건? 청소노동자 두 배로 고용하실 거예요?

튜브 자랑 아닌 자랑 하나 하자면 저는 집에서 쓰레기 버릴 때 스티커 붙어있는 거 하나하나 다 떼서 철저히 버리는 편이거든요. 여름에 백양로 걸을 때는 음료수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서 주스 같은 걸 사서 걸어가는데 다 마시고 학교 내에서도 버릴 때 항상 씻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버릴 때 보면 사진처럼 버틀리 같은 내용물이 그대로 담긴 상태로 버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학생들 인식 수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쓰레기통을 늘린다고 해서 미친 인간들의 짧은 생각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신탐이 하는 일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글이 좋았어요.

유연 진짜 그 점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학교 다니면서 잘 생각을 못 해 봤던 것 같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면 그분들이 치울 수 있게끔 버려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을 못 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글이었다고 생각해요.

데어 예를 들어서 탕수육 같은 음식물을 시켰어요. 소스 같은 경우는 벌레가 꼬이니까 벌레 꼬이지 말라고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꼭 묶어서 일반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근데 청소노동자분 인터뷰하러 갔을 때 그렇게 꼭 묶으면 못 풀어서 하나하나 가위로 자르고 다녀야 하니까 차라리 느슨하게 묶어서 옆에다 놓고 쓰레기통에 넣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활동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 중 하나예요.

비(飛) 이 글이 가장 제 취향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연세대학교보다 훨씬 더 열악해요. 조금 전 동아리 퇴임에 대한 글 관련해서 여기는 총여가 폐지됐어도 밑

에 페미니즘 동아리가 남아있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붙이더라도 따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입학한 학교는 아예 없어요. 제가 학교에 4년 동안 몸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대자보 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붙일 공간 자체도 없어요. 애초에 학교에서 다 막아놔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좀 부러웠어요. 그래도 아직은 행동할 수 있구나, 나도 이 학교 가고 싶다, 하고요. 저희도 모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SNS 친구를 맺는 정도에서 끊기고 모이지 못해요.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쓰레기 탐험대는 여러 단체가 협업한 프로젝트였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다들 하면 안 된다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거든요. 매장당할까 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곳에 속해 있다 보니 이 상황 자체가 부러웠어요. 문과대학에 자치 언론이 존재하는 점이나 학교노동자 간에도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어요. 저희 학교는 노동자분들의 시위가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가 잘 해줘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매 건물 들어갈 때마다 미화원 휴게실 먼저 찾아보는데, 있긴 있지만 구석 아니면 외부 비상구에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학교가 잘해주는 게 절대 아닌데 왜 한 번도 데모가 안 일어나는 걸까, 다들 정말 인내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할지 항상 생각해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려 하면 득달같이 물어뜯어서 모두가 사이좋은 망나니가 되고 마는 저희 학교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무례하고, 청소노동자는 또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걸 느꼈죠. 저희 학교 쓰레기통이 어떻게 돼 있다면 일반, 종이, 캔, 병, 플라스틱 이렇게 4개 분류 통이 있고 그 위에 노브랜드 쿠키 통 같이 대형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청소노동자분들이 사비로 사서 만든 물품을 그렇게 위에 올려두시고 액체나 건더기를 거기다 버리게 하거든요. 그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입학할 때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래도 되나? 지금 뭐하는 짓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

게 획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면대에 버리고 물로 헹구면 되는데 1~2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못해서 남한테 떠맡긴다는 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는구나 싶었어요. 뭐가 잘나서? 이 제도가 무엇을 용인하고 있기에? 청소년노동자들이 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 하고 먼저 포기한 상태로 이들을 용인해야 하는 거지? 학교는 뭐 하고 있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인간 혐오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글이었네요.

유연 제도가 뭐를 용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데어 인터뷰하러 갔을 때 청소년노동자분이 “근데 그렇게 버려도 돼요. 그런 일 하려고 저희가 있는 거니까”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 자식들 다 집에 가면 분리수거 할 거예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연 학교라서 안 할 거예요. 집에 가면 할 거 아니야.

데어 지가 과태료를 내니까 하겠지. 근데 밖에 나와서는 자기가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 학교가 과태료를 내니까 남한테 떠넘겨도 되고 꼭 자기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뜻이 행동하는 게 너무 꼴 보기가 싫어요. 진짜 너 뭐 돼?

모 연세대도 청소년노동자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그 논의가 돼 오는 과정들을 보면 일관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자세로 ‘청소년노동자는 학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원래 그런 건데 왜 데모하고 시끄럽게 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게 깔려 있었어요. 그게 참 안 변한다 싶은 것 같아요.

9. 마무리

유연 다음 호에 실을 글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독자모임 때 이 글은 또 어떤 얘기를 듣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지금 다루는 글을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써서 꼭 이번 호에 실어서 다음 독자모임 때도 복복 받아야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비상 이 69호가 편집장으로서 두 번째로 냈던 호인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힘들었어요. 저도 일이 굉장히 많았고 교지를 낼 인력 자체도 굉장히 부족해서. 그래서 이 호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애증의 존재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으니까 고생을 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때 썼던 글도 꽤 마음에 들고 어떻게든 이 호를 발간해서 소중한 아카이빙이나 여러 가지 글을 남겼다는 게 너무 뿌듯했고 그걸 여러분들의 감상으로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유연 맞아요. 저도 어제 새벽에 제가 쓴 글을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봐줄 만한데? 이때 나 제법 찻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했어요. 이거 쓰고 탈고했을 때는 진짜 꼴 보기도 싫고 엉망진창의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년 지나고 다시 보니까 그래도 봐줄 만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찌부찌 이 공간이, 공동체가 이렇게 잘 남아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문우라는 공동체를 지탱해 주시는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약간 감사함을 느끼네요. 문우 독자모임의 꽃말은 이 글이 결국 누군가한테 읽히기는 한다는 것 같아요. 독자모임을 통해 한 번 더 읽음으로써, 이 글이 생명을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독자모임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 따뜻한 공동체에 함께하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모 제가 아까 페스포트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던 건데 작년인가 터얼 정기공연 하는 걸 봤었던데요. 거기서 찌부찌랑 인상 깊게 봤던 게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고 마지막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쪽도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했지만 ‘오래 봤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학내에 저런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 참여하는 마음에 대해 되게 오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

우도 그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문우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비(飛) 저는 여기서 타인이잖아요. 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덕분에 왔지만 다 처음 밭는 분들이었는데도 여러분들께서 반년 동안 쓰셨던 글들 재밌게 잘 읽으며 몇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책 읽는데, 중간중간에 코멘트까지 쓰면서 한 2시간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지나는지도 몰랐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몇 장인지도 안 보다가 쓰레기 탐험대 끝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엥? 벌써 끝났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의 반년의 시간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훌륭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어

가장적으로 바르게 대강대강체 새벽 1시 27분에 그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제가 지금껏 쓴 글 중 가장 짧은의니까. 그 이후로도 수정이 몇 번 있었고 공동 기획 글을 봤고 디자인과 구성에 대한 힌트가 있었지만... 아쨌든 2시 전에 개인을 환로 내민 냈다는 데에 의미를 두ں 싶습니다.

이번 글은. 그러나. 글을 쓰는 이유를 찾아가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나는 아주 앞부분 말하고 왔네. 아쨌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왜 글을 쓰는지. 그게 맞는지. 올바른. 적절한 일이라는 한지. 하지만 대략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인 것 같아. 원고 피드백 해주고 무뎠다 제가 지고있을 때마다 좌파의 원로님들 댁에 보면 괴상합니다. 늘 그러하듯이요.

어쨌다 보니 인터뷰 기사를 연속으로 두 개 작성하게 됐네요. 학교는 오게 다녀면서도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해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세상에 대한, 사회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문답에서도 그런 고민은 숨길 수 없었네요. 무더운 여름에 70인들을 내기 위해 끝까지 항쟁 편집위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요. 그리고 쓰기 어려운 명칭있는 지적야다 등때해준 박생에게 특히 고맙게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 어쨌어쨌

튜브 원래 제 글을 쓰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우쭐하게 발 배는 게 양심에 찔렸었는데 독자모임 정리정돈으로라도 참여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운우의 기여도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집회의에 몇 번 참여하고, 편집위원들이 손글을 읽으면서 저는 유독 마음이 파랗해 자는 길 느껴서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고) 이번 호에 애착이 참 크네요. 이번 호가 당근 있는 파랗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으로 무더운 여름 동안 정말 누고 많았어요 다들~!

- 튜브 -

산도

문우에서 처음 쓰는 글인 만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쓰는 의욕에도 계속 하락이 없었지만, 모두가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만 전해주신 덕분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따뜻한 포근한 분위기든 다른 곳에서도 느껴져왔어요. 저는 문우.기회에 감사하던 생각했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덕에 밤까지 달려가면서 문우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우분들과 함께 하고, 같은 곳에 같이 싶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다음에는 다른 분들의 글도 자주재근로 피드백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가 성장하고 바라봅니다. 이번 기회엔 2편만에 글. 아만 잘 써서도 이런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며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또, 무엇보다 즐거웠어요! 그동안 한 번쯤은 써보고 싶었던 주제 글들 뉴스클립부터 시작하며 친우들의 전거할 수 있었고, 결국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꽤나 큰 성취감을 주더군요. 다음 호에는 제가 잘 몰랐던, 새로운 주제의 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이 도전해보려 합니다. "인" !!! - 산도 글쓰는 -

비상

제가 이 호에 글을 실었다니 손익히 자도 영광입니다. 한 번쯤은 써보고 싶었던 권두시도 써 보고, 기획 부록도 꼭꼭 해 보고, 특별 문답도 진행해 보고. 여러모로 문우에서 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본 듯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정말 힘든 일도 많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를 견뎌준 운우의 편집위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아픈 자는 운우가 시골 애드할 수 있고 세상을 애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상-

유연

이번 한 학기의, 그리고 7호의 편집장으로 운우에서 살아나기는 건 왜 이렇게 고단하고 연속불타하며 지치는 일이었을까요? 편집장 왜 한 거지, 내려칠래, 못 하잖아 같은 말을 하기 내내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이번 글은 운우에 실은 글 중 유독 고생했고 또 유독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글입니다. 이걸 채택 부나 인쇄하다니 자야 미안해! 들 몇 번이나 외치고 아감대축제 죽인 여럿에게 글서 만 자나 손글을 펴내면 어떤 것 같냐고 울었었는데 결국 7호에 실게 되었네요. 나중에 보면 좀 괜찮으려나오? 나중에 잘 오겠습니다.

이번 학기엔 세이나 주제도 아니었던 들봄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들봄의 한계, 불행과 최면에 대해서요. 그럼에도 제가 이 글을 결국 마감한 건 역시 명백하거나 명백하게 않은 들봄이 운우에서 저를 받쳐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7호 낼 수 있다고, 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자처신도 없이 계속 말해준 나의 편집위원들. 이번 호엔 좋아하는 기획이 가득하듯 있고, 그중 하나는 7호 특별 문답입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이유로 문우가 소중함을 알게 되어 기뻐요.

도토리

수습 편집위원으로 70호에 첫 글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평일생으로서 첫 학기, 전적대
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대시 대학에
가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활동만
하려 했지만, 문에 남은 제 모습이 웃습니다.
그만큼 제가 문우에 애정이 있다는 뜻이겠죠?
문우 덕분에 심오한 주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글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글보다 제 생각을 담은 글을 좋아해서
문우에서 글 쓰는데 재밌었어요. 고군 함께
같은 주제로 글 쓰는 동지들이 있어 마감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저가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힘들 때마다 70호
를 보며, 함께 꿈꿨던 공동체로 문우를
기억하겠습니다 :)! -도토리 ㄱD

